주체 90(2001)년

6.15주간

6.15WEEKLY

제17호(10월 12일~18일)



특집

반고이즈미
미국의 보복전쟁과 반북대결책동

노작　서부독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미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성근히 이행하라

전쟁은 또다른 테러

고이즈미내각은 자폭하라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살포된 것과 관련해

[애국 순천향] 9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 발의서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17호 (10.12~10.18)



서부독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김일성 (주체70(1981)년 10월 15일)

나는 루이저 린저선생이 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생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지지성원도 역시 세계평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선생이 이번에 판문점에 가보았다고 하는데 판문점은 우리 군대와 미제침략군이 직접 맞붙어 대치하고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믿음직하지만 미제침략군은 짐승과 같은놈들이기때문에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알수 없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제5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되던 때였는데 판문점에서 우리 군인들과 미제침략군놈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게 되였습니다. 원래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는 무장한 인원이 들어갈수 없고 그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제침략군놈들은 공동경비구역안에 있는 백양나무를 저들의 감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마구 찍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백양나무는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20여년이 되여오는 동안 아무런 말썽없이 고이 자란 나무인데 갑자기 그 백양나무를 찍겠다고 14명의 미제침략군놈과 3명의 남조선괴뢰군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담당한 4명의 우리 군인들은 적들에게 백양나무를 정 찍겠으면 당신네 비서장에게 보고하여 쌍방 비서장회의에서 합의를 본 다음에 찍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군놈들은 우리 군인들의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도끼를 든 남조선괴뢰군놈들에게 백양나무를 당장 찍으라고 하면서 마구 내몰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나무를 찍지 못하게 막아나서자 미제침략군놈들은 남조선괴뢰군이 가지고있던 도끼를 빼앗아 우리 군인들에게 던졌으며 그로 하여 우리 군인 한명이 코피가 터졌습니다. 격분한 우리 군인들이 적들이 던진 도끼를 집어서 도로 던졌는데 미제침략군 한놈이 그 도끼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미제침략군놈들은 저들의 군인이 쓰러지자 우리 군인들한테 왁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 군인들은 17명의 적들을 상대로 하여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조선사람은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자 거기에 있던 3명의 남조선괴뢰군은 들고뛰였습니다. 결국 4명의 우리 군인들은 14명의 미제침략군놈들과 싸움을 하게 되였는데 싸움과정에 우리 군인들이 적 한놈을 또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른 놈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고말았습니다. 적들은 이런 싸움이 벌어질것을 미리 예견하고 방탄복까지 입고있었으며 촬영기를 사전에 준비하여 놓았다가 싸움과정을 모조리 사진찍었습니다. 적들의 책동은 완전히 계획적인 도발이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처럼 《판문점사건》을 계획적으로 조작하여놓고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 곧 《비상대기령》을 내려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으로 하여금 진지를 차지하고 완전전투태세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공동경비구역안에 있는 백양나무를 마구 찍었습니다.

《판문점사건》이 있은후 미국무장관 키신저는 저들의 군인을 죽인 우리 군인을 처벌하고 배상금을 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미제침략군놈들의 도발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는데 무엇때문에 그들을 처벌하며 배상금을 물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판문점사건》에 대하여 자꾸 시비질을 하기때문에 그 진상에 대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미리 찍어둔 사진들을 제놈들에게 유리하게 편집하여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신문들에 내면서 우리가 《호전적》이라느니 뭐니 하고 악선전을 하였습니다.

판문점이 이처럼 위험한곳이기때문에 나는 선생이 판문점에 가보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무슨 사고나 생기지 않겠는가 은근히 걱정되여 우리 일군들에게 판문점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도록 임무를 주었습니다.

선생은 비록 위험한곳이라도 용감하게 나가면 일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나는 선생이 지난 기간 파쑈와의 간고한 투쟁에서도 죽지 않고 오래동안 세계평화를 위하여 일할수 있은것은 언제나 신심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죽는 법이 없으며 장수할수 있습니다.

선생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세계평화를 위해 투쟁해나간다면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게 될것입니다.

나는 루이저 린저선생이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쓴 《조선방문기》를 읽어보았는데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선생이 앞으로 우리 나라에 올 때에는 기일을 넉넉히 잡아가지고와서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뿐아니라 좋은 미담들에 대하여서도 취재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세상사람들에게 소개할만한 훌륭한 미담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며 사람들이 동지적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며 발전해나가는 참다운 사회주의나라입니다.

선생은 내가 우리 인민에 대한 생각으로 늘 머리를 쓰고있을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다 인민을 위한 생각으로 머리를 쓰고있습니다. 조선사람은 옛날부터 제일 더운 때를 삼복이라고 합니다. 삼복이라는것은 한문자로 세번 엎디여있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때는 날씨가 너무 덥기때문에 일을 하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군들은 삼복더위때에도 일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군들이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교양하고있습니다.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천하를 얻을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래동안 간고한 혁명투쟁을 해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많이 넘겼습니다. 어떤 때는 탄알이 외투섶까지 뚫고나갔으나 나는 죽지 않았으며 혁명을 계속해왔습니다. 내가 그처럼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오늘까지 혁명투쟁을 해올수 있은것은 하느님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다 동지들의 사랑의 덕택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혁명적동지애에 대하여 이야기하군합니다.

사랑에는 부모자식사이의 사랑, 부부사이의 사랑, 친우사이의 사랑, 동지사이의 사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동지사이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생의 체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입니다. 나는 다음해에 생일 7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부모의 품속에서 산것은 15년밖에 안되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동지의 사랑은 모든 사랑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사랑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루이저 린저선생과 두번째로 만나는데 우리 사이에는 벌써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같고 사상이 같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군들에게 인민을 하찮은 존재로가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여기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그들 매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도록 교양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우리 나라의 로동교화소에 가보고 조선에서는 사람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개조하고있다고 하면서 매개 나라에서 사람들을 처벌하는것을 보고 그 나라의 정치제도를 알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들을 망탕 처벌하는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태도라고 볼수 없습니다.

사람을 처벌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반드시 처벌을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처벌하기에 앞서 한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합니다. 처벌한다고 하여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나는 일군들에게 늘 준비된 공산주의자 몇몇 사람만 데리고 공산주의에로 가자면 래일이라도 당장 갈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잘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한뜻으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해주군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군대안에 영창이 없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에는 군대안에 영창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서는 군인들이 군사규률을 위반하면 처벌하여 며칠간씩 영창에 넣고있으며 그런 방법으로 군사규률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은 군대를 가지고있지만 군대안에 영창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와보고 당신들은 군대안에 영창이 없이 어떻게 군사규률을 유지하는가고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 지휘관들은 기껏하여 대원들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권한밖에 없습니다. 혹시 군사규률을 자주 위반하는 군인이 있다 하여도 주의를 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양하여 고치도록 합니다.

내가 언제인가 인민군대 어느 한 중대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을 만나 중대안에 규률위반건이 몇건이나 되는가고 물어본 일이 있는데 그들은 2건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규률위반건이란 어떤것들인가고 하니 하나는 한 대원이 군대에 입대하기전에 사랑하던 처녀와 만나기 위하여 몰래 외출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군인이 강냉이밭을 지나다가 강냉이 한이삭을 따서 구워먹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의 말을 듣고 외출하여 처녀를 만나본 병사가 잘못한것이 아니라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병사들의 말형구실, 맏누이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그 대원을 하루저녁 내보내여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보고 오라고 하였더라면 그가 몰래 외출하는 일이 없었을것이 아닌가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풋강냉이를 따서 구워먹은것도 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심정을 잘 알아주지 못하였기때문에 발생한것이다, 젊은 병사들이 강냉이밭을 보면 강냉이를 한이삭 따서 구워먹을 생각이 왜 나지 않겠는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이라면 마땅히 대원들의 이런 심정을 알고 풋강냉이철에 주변 협동농장에 가서 중대군인들이 먹을만큼 풋강냉이를 사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대자체로 부업밭에 강냉이를 심어 대원들이 먹고싶어할 때 따서 삶아주든가 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원들이 무엇때문에 남의 밭에 들어가 강냉이를 따겠는가,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에게 부모의 심정, 형의 심정, 동지의 심정이 부족하다, 중대장과 중대정치지도원이 남의 귀한 자식들을 맡았으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대해주고 자기의 친동생처럼 사랑해주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인민군대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인민군대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심정을 잘 알아줄데 대하여 강조하군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부터 지휘관들이 대원들의 심정을 잘 알아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때 내가 데리고다니는 부대에서는 대원들속에서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격대를 거느리고 북만원정을 할 때였는데 밤에 행군하다가 참외밭을 지나가게 되였습니다. 참외밭에서는 잘 익은 참외냄새가 풍겼습니다. 대원들의 눈길은 자연히 참외밭에 쏠리고 누구나 다 참외를 먹었으면 하는 심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군을 중지시킨 다음 참외밭주인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나는 참외밭주인에게 밭에 있는 참외를 몽땅 팔면 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참외밭주인은 다 팔면 한 50원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참외밭주인에게 100원을 주고 밭에 있는 참외를 몽땅 사서 대원들이 마음대로 따먹게 하였습니다. 대원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대원들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대로 참외밭을 지나가게 하였더라면 혹시 어떤 대원들은 규률을 위반하면서 참외를 따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였으면 결국 내가 대원들이 규률을 위반하도록 조건을 조성하여준것이나 다름이 없을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영창이라는것을 모르고 군대복무를 하지만 군사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생활을 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정치범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며 정치범이 생길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없습니다. 정치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남조선에서 간첩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강도범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소소한 경제범들이 있는데 그들은 잘 교양하면 얼마든지 개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로동교화소에 보내여 교양한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화소를 나온후 일을 잘하기때문에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은 로력영웅이 되여 어느 한 공장의 지배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교양을 잘하면 개조할수 있습니다. 교양하여 개조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있던 종교인들도 모두 우리 제도를 지지하여나서도록 교양개조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전에 대동군의 한 목사는 우리 제도를 반대하고 미국을 숭배하면서 미국군대가 쳐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미제침략군놈들이 들어오자 그 목사는 자진하여 마중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제침략군놈들은 부락에 들어와 집을 불태우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쏴죽였으며 저녁이면 젊은 녀자들을 붙들어다 릉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 대한 목사의 기대는 허물어지고말았습니다.

내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군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목사가 나를 만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곳 일군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목사가 아주 반동적이라는것이였습니다. 나는 그 목사가 무엇때문에 나를 만나겠다고 하는가 하는것을 생각해보았으나 그 리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끝에 그를 만났습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목사는 지난 시기 자기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인식을 바로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사죄하였습니다. 그는 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이나 중

국의 앞잡이로 보였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가 쏘련이나 중국의 식민지로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반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군대가 쳐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정작 만나보니 그놈들이야말로 천하에 제일 나쁜놈들이였다고 하면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쏘련편도 아니고 중국편도 아니며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건설하는 공화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목사를 만나본 다음 우리 일군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일률적으로 친미파로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그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나라 종교인들은 교양개조되여 우리를 지지하여나섰습니다. 강량욱부주석은 80고령이고 해방전부터 목사이지만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없어지게 하는데서 미국사람들이《공로》가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지 오래 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있은 우리 당 제6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게 하자는것입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실현되면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발성이 더 높이 발양될것이며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높아져 나라의 법도 더 잘 지키게 될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리해관계를 크게 가지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범죄의 근원을 없애는데서 주요한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남의 돈을 훔치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구라파사람들보다 더 잘산다고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보다 못산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에서 사는 김성락목사가 우리 나라에 왔다갔습니다. 그는 평양숭실중학교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3.1운동지도자의 한사람입니다. 김성락목사는 해방전에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는 리유로 박해를 받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조선인목사들가운데서도 영향력이 큽니다. 그는 80고령이 되고보니 더 늙기전에 고향인 평양에 와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에 대해 자꾸 비방하기때문에 실지 어떤가 하는것을 알아보자고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성락목사는 평양에 와보고 매우 놀라와하였습니다. 일제시기 평양은 빈민굴과 기생이 많은것으로 유명하였으며 형편없이 락후하였습니다. 그러던 평양이 천지개벽하여 지상락원으로 되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오기전까지는 자기의 친척들이 지난날 다 잘살았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모두 처형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 친척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나 배우, 교원을 하고있었습니다.

그가 조국에 와서 한달가까이 있으면서 보고싶은곳을 다 돌아보고 나를 만나보고싶다고 하기때문에 내가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상락원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 북반부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지 알수 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것은 천당에 가서 잘살아보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북반부같은 지상락원이 있는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천당에 가겠다고 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성락목사를 만나서 조국을 방문한 감상이 어떤가, 미국에 비하여 조국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고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밤에 다니다가는 강도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녀자들은 겁탈을 당하기때문에 사람들이 밤에는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지하철도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살지만 못사는 사람은 아주 못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느님을 믿어 천당에 가려고 하였는데 그 천당이 바로 공화국북반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김성락목사와 식사를 같이할 때에 그에게 기독교에서는 밥을 먹기전에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는 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드리면서 조국북반부에 지상락원이 이룩되였는데 이 지상락원이 계속 잘 보존되기를 바라며 이처럼 훌륭한 사회제도가 서고 인민들이 잘살게 된데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좋은 세상을 마련하여주신 **김일성**주석께서 만수무강하시도록 하여줄것을 하느님께 빈다고 하였습니다.

김성락목사는 이번에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조선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우리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주를 비롯한 해외에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이 조국을 많이 방문하고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 형편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농사가 아주 잘 되였습니다. 벼는 지난해에 비하여 정보당 평균 1톤씩 더 날것이 예견됩니다. 우리는 생산되는 알곡의 절대량을 소비와 축적에 돌리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연재해가 생길 위험은 없지만 식량예비를 많이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는 구호를 들고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가까운 앞날에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고 20만정보의 새땅을 찾아내며 물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서해안에는 간석지가 많기때문에 그것을 개간하면 많은 땅을 얻을수 있습니다. 화란에서 간석지를 많이 개간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나라보다 간석지개간을 더 헐하게 할수 있습니다. 간석지를 개간하자면 무엇보다도 돌이 많아야 하는데 화란에는 돌이 없기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돌을 사오지만 우리 나라에는 산이 많고 돌이 무진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서해안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데 썰물때 드러나는 땅에 제방을 쌓고 밀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많은 새땅을 얻을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공업토대가 약할 때에는 간석지를 개간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공업토대에 의거하여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석지를 개간해본 경험도 일정하게 가지고있습니다. 간석지를 30만정보 개간하면 벼를 한 200만톤 더 생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해부터 시작하여 한해에 한 5만정보씩 간석지를 개간하여 1980년대말까지 30만정보의 새땅을 얻자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간석지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5년까지 태천발전소와 남포갑문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벌써 공사에 착수한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알곡을 500만톤만 가지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해

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때문에 알곡예비를 많이 조성하고있습니다. 남반부에서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있지만 농사를 잘하지 못하기때문에 올해에만도 700만톤의 알곡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국이 통일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는데 지금부터 식량예비를 가지고있지 않다가는 그때에 가서 남반부인민들에게 공급할 쌀이 없어서 곤난을 겪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찬양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해결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매개 나라는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맑스나 레닌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쏘련의 경험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쏘련이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쏘련식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실현하는것도 쏘련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였기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하였습니다.

쏘련장편소설 《개간된 처녀지》는 쏘련에서 농업집단화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쏘련에서 농업집단화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는데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고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다보니 나라의 공업토대가 약한 조건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는것은 《시기상조》라느니 뭐니 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과정에 미제국주의자들의 폭격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모든것이 무참히 파괴되였으며 도시의 개인상공업자들이나 농촌의 부농들까지도 모두 무산자나 다름없이 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는것은 전후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행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이 어떠하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자원성의 원칙에서 사회주의협동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협동화는 전후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우 짧은 기간에 아무런 편향이 없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쏘련사람들은 올해초에 진행된 쏘련공산당 제26차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협동체라는 말을 쓰면서 거기에 우리 나라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쏘련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협동체에 포함시키지 않은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쏘련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협동체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이 하자는대로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나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니 재미도 있고 모든 일이 잘됩니다.

선생이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진정한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조선처럼 쏘련의 영향과 쏘련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구라파나라들의 당면한 투쟁과업은 쁠럭불가담적인 구라파를 건설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옳은 견해라고 봅니다. 같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을수 있어도 상하관계는 있을수 없습니다. 매개 나라는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또 호상존중하여야 합니다.

얼마전에 있은 애급대통령 사다트의 장례식에 우리 나라에서는 부주석이 갔다왔습니다. 나는 사다트를 여러차례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에게 자주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주성을 철저히 지킬것을 나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아랍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의껏 도와주었기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와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로선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나는 올해에 단마르크사회민주당 부위원장과 오지리사회당 중앙비서를 비롯하여 구라파에서 온 사회당대표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구라파가 자주화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오늘 모든 나라들이 자주화된 새 세계를 지향하여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습니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뿐아니라 공산당, 로동당들사이에서도 자주성에 기초한 호상 평등과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해에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때에 공산당, 로동당 대표들이 많이 왔댔는데 내가 시간상 관계로 그 대표들과 담화는 다 하지 못하였지만 인사는 다 나누었습니다. 공산당대표라고 하여도 자주성을 가진 공산당의 대표인 경우에는 이야기를 나눌 재미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나눌 재미가 없습니다.

당은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만 자주성도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군중적지반이 없이 당원 몇몇 사람들로 조직된 당은 참다운 로동계급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지금 일부 나라 공산당들이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인민대중을 당주위에 결속시키지 못하고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이 최근 아랍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정세와 관련한 나의 견해를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란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이란혁명이 어떤 조건에서 승리하였든지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기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문제는 이란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이 인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수 있는 명백한 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는것입니다. 얼마전에 이란국회 의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는데 그는 우리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들은 회교를 믿지만 조선에 와보고 조선식으로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오랜 시간 담화하면서 우리의 국가건설경험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아랍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서 팔레스티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아라파트와 여러차례 담화를 하였습니다. 나는 그와의 담화에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팔레스티나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랍지역에서는 팔레스티나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과 함께 이 지역에서 쏘미대결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애급대통령 사다트가 암살된후 아랍지역의 정세가 긴장해졌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유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가는데 필요한 근거지를 하나 더 만들려는 목적밑에 아랍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정세를 격화시키고있습니다.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면 세계전쟁의 위험성이 제거될것입니다.

나는 파시즘을 제일 반대합니다. 파시즘을 반대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이며 그것은 곧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선생을 세계의 유명한 평화투사로 생각하는데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하면 인류앞에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선생이 다음번에 우리 나라에 와 여름에 몇달 바다가에서 휴식을 하면 몸에도 좋을것이며 나도 시간을 내여 선생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선생이 건강한 몸으로 오래 활동하면서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며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남만으로

≪세기와 더불어≫ 제6장 시련의 해



…

항일전쟁의 길에 나선 우리 부대앞에는 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첫째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야 하였다. 둘째로, 부대를 질량적으로 급속히 확대강화해야 하였다. 셋째로, 혁명군대가 의거할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고 유격대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야 하였다.

우리는 이상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남만원정에서 찾고 그것을 1932년 한해동안의 주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는 다른 현이나 구에서 조직한 무장부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유격대가 해당 현의 출신들로 조직되었다면 안도유격대는 동만, 남만의 여러 현에서 선발된 전위분자들과 국내에서 들어온 선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지방의 유격대가 자기 지방에 정착하여 활동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 우리 부대는 판도를 한 두 고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백두산 지구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전반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안도는 지역적으로 볼 때 유격전에 매우 유리한 고장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방금 껍질을 터치고 태어난 우리 유격대는 광활한 대지에 나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줄기와 가지를 자래우고 인민들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였다. 성급하게 투쟁일면에만 치우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보존만을 생각하면서 한자리에 앉아 어물어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리가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출발을 원정으로 선택한 하나의 중요한 리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남만원정의 주되는 당면목적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에서 독립군부대들과의 련계를 맺는 것이었다. 남만의 통화지방에는 량세봉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공동전선을 맺으려고 하였다.

량세봉의 관활하에 있는 독립군력량이 수백명이나 되었다. 그 부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도 하였다.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던 당시는 량세봉이 당취오의 자위군과 합작하여 일본군과 만주국군을 성과적으로 타승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전과보도가 소사하골짜기에까지 날아와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박훈은 량세봉이 반공이 골수에까지 사무친 국민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을 달가와하겠는가하고 머리를 기웃거렸지만 나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리유가 무엇인가고 하면서 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량세봉과의 합작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그가 우리 아버지와 깊은 친교관계를 맺어온 사람으로서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는 지난날의 정의와 인맥관계를 중시한데도 있었다. 김시우와 량세봉이 화전에서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말을 나는 벌써 어린 시절에 들었다. 량사령과 우리 아버지 사이의 친분이 이만저만 두텁지 않았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나를 위해 화성의숙에 보내는 소개서신도 써주지 않았을 것이며 길림에 나타날 때마다 육문중학교에 찾아와 내 손에 돈도 쥐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학비난 때문에 남들이 사먹는 호떡조차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푼전을 아껴가던 그 시절에 그가 준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지 모른다.

왕청문 사건이 있은 후 국민부일반에 대한 환멸로 하여 량세봉과의 관계도 자연히 소원해졌지만 나는 그에 대한 고마운 정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지우지 않고 있었다. 유격대를 창건해놓고도 그 출로를 찾지 못해 안타깝게 모대길 때 량세봉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맨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통일전선도 통일전선이지만 여러해동안의 실전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서 필요한 조언도 듣고 고무도 받고 싶은 욕망이 그만 못지 않게 간절하였다.

…

민족과 인류를 지켜주시는 위대한 은인

평양방송 - 남조선청년을 위한 시간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주체 78(1989) 7]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기록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우러르며 위인칭송의 이야기 민심의 광장을 끝없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수의 가정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 소식을 접하고 감격과 흥분을 금할수 없었던 통일운동 인사들이 모여앉아 밤이 깊도록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 재야인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마련하심으로써 침략과 전쟁에 미쳐 날뛰는 미제의 콧대를 단호히 꺾어 놓으셨다고 긍지넘쳐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반도는 물론 지구상에 드리웠던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이 세계사적 사변은 백두산의 지략과 담력을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만 이룩하실 수 있는 쾌거라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천하를 평정하실 세계정치원로이시고 21세기 태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이어 재야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인사가 격정을 터놓았습니다.

어제는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고 오늘은 또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을 헤쳐놓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러모스크바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의사회구현과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어떤 원칙과 입장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백히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은 보던 바, 듣던 바 그대로 탁월한 위인이시다, 우리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앞장에서 개척해 나가시는 세계의 한분밖에 없는 위대한 구세주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공식방문 소식을 접한 남녘의 각계각층 동포 누구라 할 것없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 인류의 자주평화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장군님께 삼가 경모의 인사를 드리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통해서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위업의 위대한 영도자 세계평화위업의 견결한 옹호자로써의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를 다시금 심장으로 느꼈으며 절세의 위인을 영도자로 모시고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가다듬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민족의 자주도,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문제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이 계시어 21세기는 인류자주위업의 세기로 진보와 번영의 세기로 빛나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 겨레의 확신은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남조선의 강원대학 학생들은 지하이념써클을 가지고 저저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영수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세계제일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런 민족이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주체이념과 민중봉사신념이 투철하시고 정열과 **신념이 뛰어나신 위인중의 위인≫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격찬해마지 않았습니다.

이아무개 학생은 ≪**김정일**장군님이 계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인류가 갈망하는 영원한 평화도 번영도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을 위대한 영수로 모시고 있는 **김일성**민족의 한 성원으로써의 긍지를 안고 통일성업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높이 따를 마음이 이렇듯 철석의 의지로,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의 서울행각과 관련해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고이즈미가 오는 15일 이땅에 기어들겠다고 한다.

역사교과서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행위로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치솟은 격분을 자아내고 있는 고이즈미가 사죄 한마디없이 뻔뻔스럽게 서울에 기어들려는 것은 간악한 일제 식민지통치의 오만성과 횡포성을 그대로 재현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외면한 일본총리의 행각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극악한 재침책동의 일환으로 낙인찍고 전국민의 치솟는 분노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의 목적은 일본이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피의 과거사를 백지화하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반일감정을 무마시켜보려는데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사건을 기화로 이북압살을 겨냥한 불순한 모략을 꾸미려는데 그 음흉한 저의가 있다.

지금 일본은 허황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코저 군국주의의 길로 내달으며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침략과 살인행위가 버젓이 보여지는바 기노마루를 펄럭이며 기미가요가 고창되는 속에 고이즈미를 두목으로 사무라이후예들의 해외침략야망이 노골화되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켓을 비롯한 최신형 전쟁장비들이 대량 생산전개되고 중무장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공공연히 제창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동아공영권부활과 군국화의 쌍두마차를 타고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는 일본의 한반도재침흉계를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으며 천추에 사무친 원한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불변의 의지를 안고 있다.

고이즈미는 1천만명서명운동에 떨쳐나 내외의 줄기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민중의 반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불순한 행각계획을 즉각 철회해야하며 우리 민족앞에 과거의 침략사와 오늘의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한다.

만일 고이즈미가 이것을 외면하고 이땅에 기어든다면 전 국민의 거세찬 항거속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땅에서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민의 표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전 국민은 고이즈미의 서울행각 목적을 바로보고 이를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하며 거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재침의 칼날을 꺾어버리고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하여 민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함께 고이즈미의 행각을 반대배격할 것이며 일본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야 말 것이다.

주체90 (2001)년 10월 12일
서울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총리의 방한을 반대해 여러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10월 11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오는 15일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4일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도 독립유공자유족회 등과 함께 8일부터 서울에서 고이즈미총리의 방한반대 1천만명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본부측은 성명을 발표하고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이같은 투쟁은 민족의 얼을 지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을 꺾어버리기 위한 의롭고 정당한 투쟁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두둔하에 재건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해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핵무장화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의의 시각에 핵탄을 만들수 있는 기술과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에는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장거리운반로켓까지 시험발사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집단은 또한 우리 한반도와 가까운 서부지역에 자위대무력을 집중재배치하고 있으며 자위대를 해외침략에 유리하게 법장치들을 주동적으로 뜯어고쳤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같은 한반도재침책동의 앞장에 바로 고이즈미총리가 서있는 것입니다. 고이즈미총리와 그의 정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자행한 만고대죄에 대해 아직도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심히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만든 일본우익단체의 범죄행위를 적극 비호두둔하면서 우리의 재수정요구를 거절했는가하면 지난 8.15패전일에 즈음해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아시아나라 국민들이 그처럼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1급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최근 고이즈미일본정부는 한러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 나라 어선들이 남부 쿠릴열도 주변에서 꽁치잡이를 하는 것을 시비방해했을뿐 아니라 지난달 10일과 11일 모스크바회담을 통해 한국의 남부쿠릴열도의 꽁치조업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파렴치성을 보여 우리 국민을 더욱 분격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이 고이즈미총리는 일본 군국주의두목으로써 한반도의 재침에 누구보다 더 열을 올리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얼과 자존심을 심히 파괴하며 한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계 국민들과 사회단체들이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을 반대하면서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하겠습니다.

고이즈미총리가 기를 쓰며 방한하려고 하는 것은 저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일감정을 누잦혀보려는데 그 범죄적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각계 국민들은 고이즈미총리의 범죄적 방한을 반대하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이즈미총리가 끝내 방한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보다 큰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중한 단계에 이른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

구국전선 주체 90(2001)년 10월 11일

일본반동들이 우주군사화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일본이 대형 로킷(H—2A)을 발사시험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일본반동들은 로킷발사시험을 그 무슨 ≪우주개발≫을 위한 것인듯 광고하고 있지만 이번에 진행한 로킷발사시험은 우주개발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립박물관의 스츠키주임연구관은 ≪H—2A≫를 이용하여 앞으로 ≪정보수집위성도 쏴올린다는 계획도 있다≫고 말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발사된 로킷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반동들은 냉전종식후 ≪독자적인 방위능력보유≫를 운운하면서 1994년 1월 방위청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위성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 갔다.

일본정부는 1995년 11월에 결정한 2005년까지의 ≪방위계획대강≫에 전략정보를 포함한≪고도의 정보수집, 분석체계의 확립≫을한 조항으로 박아넣었으며 1997년 1월에는 방위청에 ≪자위대≫의 각 군종과 통합막료회의의 정보부문들을 통합한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본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위성정보를 분석, 처리하는 화상부를 내왔다.

특히 1998년 일본반동들은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미사일위협≫설을 요란하게 내돌리면서 지난 10여년동안 국내외적인 규탄과 반대로 정식 채택하지 못하고 있던 정보수집위성도입결정을 채택하고 2002년회계연도까지 모두 4기의 정탐위성을 발사하기로 하였다.

일본 ≪니홍게이자이신문≫이 밝힌데 따르면 일본은 2002년에 4기의 정탐위성을 발사한 다음 2005년에 2기, 2007년에 2기의 정탐위성을 더 발사하기로 하였으며 올해중에 홋카이도, 이바라기현, 가고시마현에 정탐위성정보수신을 위한 지상기지를 3개 완성한 다음 도쿄에 200명이상의 직원을 둔 중앙센터를 내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정탐위성까지 쏴올리게 되면 일본반동들이 임의의 지역이나 나라들에 대한 정탐활동은 물론 군사적 선제타격도 제마음대로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일본반동들의 미사일개발과 우주군사화책동은 이북을 주되는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1990년대에 미국에 편승하여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댔다. 특히 1998년 8월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그들의 반이북미사일소동은 절정에 달했다. 이북의 인공위성≪광명성 1호≫를 ≪탄도미사일발사≫라고 운운하면서 국제무대들에서 일본이 이북의 ≪위협≫속에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려 들었다.

결국 일본반동들은 이북을 걸고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던 것이다.

일본방위청우두머리들은 요즘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다느니, 이북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만큼 이에 대처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이북을 걸고 우주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반사실들은 재침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반 일 천)

남조선일본≪어업협정≫과 일본총리의 행각을 반대하여 투쟁

(평양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의 ≪기독교방송≫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시민단체와 어민들이 남조선일본≪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일본총리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련대투쟁에 들어 갔다.

일본력사교과서외곡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부산의 6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어업협정≫의 재협상을 통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당국의 어업외교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일본총리가 남조선에 오는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과와 공식해명이 선행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자위대≫ 파병의 즉각 중지와 방위비충당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일본총리의 남조선행각 예정일인 15일 부산역광장에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어민단체소속 어민 200여명은 부산의 시민단체와 련대하여 일본제품안사기운동과 일본령사관 항의방문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11일부터 부산시청광장에서 천막롱성에 들어갔다.

한편 이에 앞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지난 9일 일본총리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이어달리기시위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시위에 들어 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총리가 남조선에 오기에 앞서 교과서외곡과 일제시기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에 대해 먼저 일본국민들과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자고 한다면 미국의 전쟁 지원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역할확대에 힘을 쏟을것이 아니라 먼저 과거의 침략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로동당≫이 각지에서 일본깃발 화형식 진행

(평양 10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15일로 예정된 일본총리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시위가 각지에서 벌어 졌다.

≪민주로동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일본기발화형식시위를 가지고 일본력사교과서외곡 등을 모면하기 위한 일본총리의 행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민주로동당≫은 이와 함께 경기도 수원과 부산, 광주 등 전 지역에서 일제히 일본기발화형식을 가지였다.

한편 ≪한국사연구회≫ 등 력사학관련 23개 단체들은 12일 성명에서 력사교과서외곡과 ≪야스구니진쟈≫참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군비를 확장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획책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면서 일본총리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한다

시민사회단체, 고이즈미 방한 반대 집회 열어

반미, 반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각계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250여명은 15일 낮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반대하고 미국의 보복전쟁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집회에서 전국연합,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각계 단체 대표들은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으며 자국의 군사대국화의 야망에 불타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하는 것은 ≪전쟁이 가능한 제국주의≫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행위원은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원했다며 정신대 문제로 피해 입은 할머니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하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대부분의 유언은 ≪일본 정부의 진실된 사죄와 배상을 받고 죽어야 원이 없겠다≫는 말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염 실행위원은 ≪정신대 문제는 여성의 문제요, 민족의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면 한일문제도 풀린다≫고 말해 그 한이 깊음을 실감케 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임삼진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미온적 입장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제라도 자주적인 입장으로 일본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회를 구경하던 김영훈(한양대, 3) 학생은 ≪저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며 ≪국민들에게는 의미있는 내용들이지만 어차피 정치적인 거래로 한일 정치권의 이익만 남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주변 상가의 윤상한(약사, 62)씨는 ≪36년간의 치욕과 정신대 문제, 역사왜곡 등에 대한 진실된 사과 없이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한다≫며 집회에 대해 동의를 표시하고 ≪과거 우리 민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본에 대해 심한 적개심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일본에 대한 반감을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2가에서 인사동 주변을 행진하며 ≪고이즈미 방한 반대≫, ≪군사대국화 반대≫ 등을 외쳐 시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냈다.

행진을 마치자 참가자들은 고이즈미 총리를 형상화한 피켓을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고 큰 박수로 집회를 마쳤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방한의 결과를 놓고 다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며 정부의 행보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반일에 대한 감정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15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15일 오늘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실로 우려스럽고 치욕스런 날이다.

일본은 과거 40년 동안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역사적 범죄자다.

일본은 또한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분단을 조장,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온 국제적 탕자다.

그런데도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침략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교과서의 왜곡, 날조를 통해 이를 미화하고 침략전쟁을 자행한 전범자들에 대한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범죄를 정당화하는 가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던 일본은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보복 전쟁을 감행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전쟁에 대한 파병과 병참 지원의 뜻을 밝혔으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자위대법 개정안과 후방지원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대내적으로는 역사 왜곡과 신사 참배를 통해 자국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꾀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로까지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넓히며 군국주의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의 모습이며, 그 맨 앞장에 고이즈미가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이즈미가 한국을 방문하여 과거 침략사를 사죄한다는 것은 서천소도 웃을 일이다. 그것도 그가 애국열사들의 원혼이 서려있는 이 곳 독립공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우롱이자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고이즈미가 부시를 대신하여 방한하였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맹주와 제2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고이즈미의 방한을 보면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자존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들은 고이즈미의 서대문 독립공원 방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족적 치욕으로 여기며, 이에 그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수락한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고이즈미가 독립공원을 방문하여 과거 침략사를 사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을 것이며, 군국주의화와 한반도 재침략 음모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이즈미가 조금이라도 사죄할 의향이 있다면 그의 방한이 결정된 바로 직후에 남쿠릴열도에서 우리 나라의 조업권을 배제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할 리가 없다.

김대중 정부는 이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명확히 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일어업협정에서도 우리의 조업권을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사죄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고이즈미와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계속되는 대일 굴욕적인 외교 자세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며,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한반도 재침략 음모를 용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

이에 우리는 고이즈미의 방한과 김대중 정부의 대일 굴욕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역사왜곡과 신사참배,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 음모, 독도 영유권 침탈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1년 10월 15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범민련

고이즈미 방한반대 대전충남통일연대 성명서

군국주의 실현을 위한 사죄와 반성, 군국주의 광신자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한다.

오는 15일 침략의 역사를 미화한 역사왜곡과 전범을 찬양한 신사참배를 자행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한한다.

역사왜곡과 신사참배를 강행한 고이즈미가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도 용납 될 수 도 없지만, 방한을 하여 과거에 대해 사죄와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일관계를 증진시키겠다는 일본이 그러한 방한을 앞두고는 쿠릴열도에서의 한국어선의 조업을 막기위해 러시아를 돈을 주고 매수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며 과연 고이즈미의 방한 속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방한한다는 것인며, 김대중 정권은 왜 갑자기 정상회담 요구에 합의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고이즈미의 방한의 목적은 말뿐이 사죄와 반성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미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전쟁에 대한지지와 공동의 대처를 통해 실제에 있어서는 군국주의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목적이다.

일본은 현재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플류토늄만으로도 3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2010까지 100톤의 플류토늄을 더 확보할 계획인데 이는 현재 미소가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보다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거기에 일본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로켓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침략과 약탈을 자행한 군국주의를 위한 모든 만전의 준비를 마치고, 그 시기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미국의 요청에 따른 방한은 이러한 모든 준비에 맞게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대전충남통일연대는 이러한 군국주의 광신자 고이즈미의 간교한 의도를 바라보며, 역사왜곡과 신사참배로 민족의 존엄을 유린한 고이즈미는 이땅에 발을 들여놓을수없다는 것과 더욱이 사죄와 반성의 허울을 쓰고, 미국전쟁지지와 자기나라의 군국주의를 실현하려 방한하는 고이즈미를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 역사왜곡, 신사참배 고이즈미 방한 반대한다.

– 말뿐인 사죄와 반성 필요없다. 전쟁참여, 군국주의 실현을 위한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한다.

– 세계평화유린하는 미국의 전쟁을 지지 지원하기 위한 한일정상회담을 취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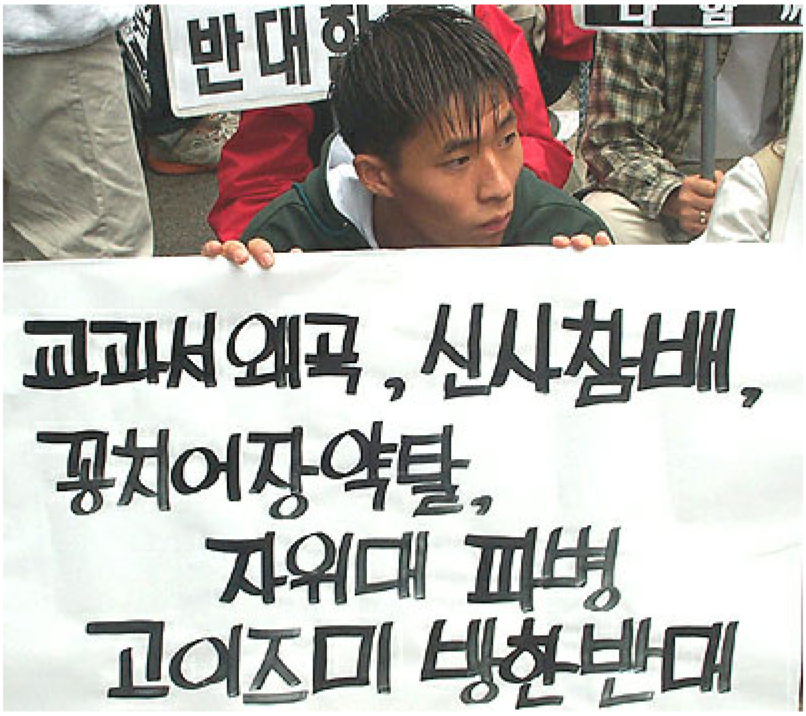
2001년 10월 13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겉과 속이 다른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반대한다

말뿐인 사죄 필요 없다, 법적인 책임 이행하라!



10월 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한국정부는 한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일본정부가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대일 문화개방을 거부하고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한국정부가 두 달도 채 못 되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허용한 것이다.

그사이 일본의 무엇이 달라졌기에 우리 정부의 그토록 강경하던 입장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모종의 흑막이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고이즈미가 누구인가? 그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등을 오만하게 관철시켜온 장본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를 압박하여 남쿠릴 열도에서의 우리 어선의 꽁치조업 금지를 획책하였으며 게다가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기화로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 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런 그는 무슨 낯으로 한국을 방문하려 하며, 그를 허용하는 우리 정부는 과연 자존심이 있는 정부인가?

결국 고이즈미 총리가 저토록 급히 당일치기 방한을 감행하는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터줌으로써 테러보복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이 기회에 재무장 합리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흉계가 숨어있는 것이다. 왜 우리 정부가 그 장단에 아무런 실익도 없이 놀아나는가?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이 몰고 올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비수가 되어 우리의 후손에게 돌아갈 수도 있으며 또 다시 쓰라린 과거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방한을 결단코 반대한다.

우리는 두 나라가 과거사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98년의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혔듯이 동반자 정신으로 돌아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두 나라가 노력하게 되기 위하여는 일본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나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즉, 일본정부는 그들의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35개조 수정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왜곡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국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이며,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이 한국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이다. 그 조치란 일제강점하에서 비인간적인 피해를 강요받았던 한국 국민과 피해당사자에게 반드시 납득할만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위장술책일 뿐이며,

여기에 한국정부가 아무 생각없이 호응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테러사건을 이용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양국 정상의 회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둘째, 일본정부는 일제하 식민지 시대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전쟁피해조사회법의 제정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셋째,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

넷째, 일본정부는 징병 ·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미불금 상환 등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

다섯째, 일본정부는 피해자를 능멸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위패를 반환할 것

여섯째, 일본정부는 군사대국화의 망령을 벗어버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2001년 10월13일
민족문제 연구소 대전시 지부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한 결사반대 군국주의 부활저지 울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문

고이즈미는 우리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한다!

오늘(15일) 한일 양국간의 정상회담을 위해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방한을 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자국민에게 군국주의의 부활을 공언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현실로 만들자고 떠들어대는 군국주의 부활 신봉자로서, 집권 첫 시기부터 강력한 일본건설,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대국, 군사대국건설을 주창해온 자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에 편승해 자신들의 헌법까지 수정해가며 자위대의 재무장과 해외파병에 자진해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8.15 패전일에 즈음해 우리 민족은 물론 아시아 각국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급 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자신의 군국주의 부활의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뿐만이 아니라, 우익세력을 앞세워 ≪위안부≫역사는 화장실 역사이며, 아시아 침략 전쟁을 아시아 민족해방 전쟁으로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날조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국제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해 졌다.

이런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일정상회담은 우리들에게 당혹함과 배신감,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대중정부는 2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일간의 모든 비공식 · 공식적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공언했다. 2가지 전제조건이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공식사죄를 통한 교과서 재수정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결정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과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망국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역시 고이즈미 방한은 우리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 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한국 땅을 밟고 말았다. 7시간 30분이라는 짧은 방문을 통해 고이즈미가 한일은 아무것도 없다.

형식적인 사과외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본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전범들의 위폐가 있는 신사를 참배해 놓고 그러한 역사인식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는 말만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우리민족에게 36년간이라는 치욕을 주고 우리민족의 젊은 청년을 침략전쟁터로 내몰고 어린누이들을 성노래감으로 무참하게 짓밟아 놓고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적도 없으면서 또 다시 유감, 사과 운운하면서 우리민족을 기만한 것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또다시 침략전쟁을 꿈꾸며 진행하는 군국주의 부활을 당장 중단하고 역사교과서를 올바르게 기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남쿠릴 열도 꽁치잡이 문제와 비무장 어선 침몰사건에서 보듯이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이제와서 실무회담을 하겠다며 오히려 자신들의 야욕과 속셈을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은 자신들의 과거 범죄, 역사왜곡과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만가는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저급한 속셈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이즈미 방한이 가지는 의미를 바로 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며 전민족의 반일 의지를 담아 반대해 나갈 것이며 기만적인 고이즈미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정부와 고이즈미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국민과 아시아 민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수정하라.

하나, 1급 전범자들에 대한 신사참배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라.

하나, 군국주의 부활 음모 자위대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 증강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남쿠릴열도의 꽁치조업 방해와 비무장어선 침몰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불평등한 한일어업협정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한국 정신대 여성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

2001년 10월 15일

고이즈미 일본총리 방한 결사반대 및 군국주의 부활저지 울산지역 참가단체 일동

(울산YMCA,울산여성회,울산YWCA,동구노동단체(준),동구주민회,매구마당,민족예술인총연합울산지회,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사회당울산시지부,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울산노동자의힘,울산대학교총학생회,울산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울산여성연대모임,울산여성의전화,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참여자치연대,울산청년회,평등연대,울산노련,울산해고자복직협의회,울산환경운동연합,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현대중공업노동자가족협의회,현장21,노동21,흥사단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대민주화교수협의회,한국노총울산본부,교육자치시민회,동해민속예술원,추임새,한턴,우리글,그림세상,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재단법인사랑의장기기증운동울산지부, 대한호스피스회,함께하는사람들, 이상 43개단체)



고이즈미 방한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일이다



1. 오는 15일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는 아프간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량학살하는 전쟁에 무조건적인 연대를 바라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요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문이기에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2. 고이즈미 방한은 우리 역사에서 다시 한번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수많은 독립군을 무참히 학살하고 이 나라 여성을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만드는 야만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에 대해 한치의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문제, 남쿠릴 열도 꽁치어장 문제 등 여전히 침략국으로서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3. 일본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면서 여기에 편승해 자위대 파병 등을 공식천명하며 지금까지 꿈꾸어 오던 자국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임진왜란, 구한말 일본의 침략 등 과거 역사에서도 증명하듯이 항상 야만적인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한반도 침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4. 미국의 침략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전 세계를 전쟁과 불행으로 내모는 장본인이다. 이러한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고이즈미 방한에 우리정부가 침묵한다면 국민의 큰 저항과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벌이는 제국주의 야욕을 저지시키기 위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인류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며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1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반성없는 日총리, 면죄부 준 정부

역사교과서 · 참배 재발방지, 꽁치 재협상 등 빠진 면피용

15일 방한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서대문 독립공원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한일 과거사에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언급이,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95년 무라야마 담화나 98년 파트너십공동선언의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일본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분노를 무시한 외교적 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역사교과서, 참배, 꽁치조업 금지 재협상 등 과거사를 반성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성의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반성하지 않는 면피성 언급≫으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7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과거사를 얼버무리고 ≪눈도장≫만 찍고 면피해보겠다는 일본의 얄팍한 작태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는 등 대일 굴욕적인 태도로 국민의 자존심을 욕보인 김대중정부 역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은 반성하지 않는 일본 총리와 굴욕적인 태도로 면죄부를 준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같은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 · 참배 재발방지≫, ≪꽁치재협상과 어민 생존권 보장≫, ≪외교통상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퇴진 투쟁≫ 등 양심적인 모든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년 10월 15일
당 부대변인 채진원

남측 비상경계조치와 관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 연기 표명

조평통대변인

(평양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과 관련하여 1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북남상급회담이 재개된 이후 북남사이에는 10월에만도 제6차 상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이 열리게 되여 있다.

이와 함께 제4차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과 태권도시범단 서울방문날자도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대화와 래왕은 북남사이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한층 높이고 전반적인 북남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게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턱을 대고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 져 예측할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니 ≪비상국무회의≫니 하는 것들을 통하여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력설하고 있는가 하면 군부세력들은 우리 군대의 ≪동향을 놓고 대책을 론의≫하고 군의 대비태세, 출동태세를 더욱 강화할것을 공언하고 있다.

중단되였던 당국대화가 재개되고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를 걸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것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갈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정신에 배치되며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심히 자극하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

살벌한 경계태세하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대화와 래왕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도 없다.

대공포가 하늘을 겨누고 아차하면 미싸일이 발사될수 있는 ≪비상경계태세≫가 취해 지고 있는 지역에 몇명도 아닌 숱한 민간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드나든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런 속에서 자유로운 가족, 친척상봉이나 태권도시범단의 출연이 잘 될수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우리측의 당사자들도 지금의 정세하에서는 남조선에 마음놓고 가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를 고려하여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과 우리측 태권도시범단의 서울 파견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일관하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리측은 10월중에 하기로 되여 있는 제6차 북남상급회담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북남당국회담은 제날자에 그대로 진행할것이다.

이 회담들의 개최장소는 우리가 이미 제안한바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여 있는 금강산지역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에서 비상경계조치가 시급히 해제되고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과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풀어 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긍정적으로 대하리라고 확신한다.

미제가 공군부대를 남조선에 새로 배치



(평양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의 ≪문화방송≫에 의하면 미제가 11일 본토에서 1개 대대급의 공군부대를 끌어 내여 남조선에 새로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테로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투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제와 남조선군사당국은 2일 그 무슨 ≪보도문≫이라는데서 항공모함 ≪키티호크≫호를 중동지역에 투입함에 따라 조선반도전투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미공군전투무력을 증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공언한바 있다.

40여개 여성단체, ≪여성평화행동≫ 선포

여성단체들이 전쟁반대를 위한 ≪여성평화행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비롯한 40여개의 여성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탑골공원에서 ≪전쟁반대와 전 세계의 무장해제를 위한 여성평화집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힘없는 여성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이게 됐다≫며 여성평화행동을 선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현재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없는 힘≫을 모으는 것으로 국제여론과 양심세력을 일으켜 세워 힘없는 자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묶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의 여는 마당에는 ≪마고 할미≫가 등장해 전쟁중단의 메시지가 담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부시에게 ≪어미의 작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성평화행동 선포에 나선 이김현숙 공동대표는 ≪전쟁이 종식 될 때까지 한국여성들의 강인한 힘을 모아가 반드시 전쟁을 종식시키자≫고 주장했다. 선포와 함께 여성평화행동 참가단체들의 결의 발표가 이어졌다.

결의 발표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신혜수 공동대표는 ≪전쟁을 겪을 때마다 여성, 아이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다른 누구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프간은 지난 20년 간 전쟁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출산사망률과 유아사망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이들도 4명중 1명이 5살 이내에 죽는다≫는 처참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간의 수많은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미국의 보복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며 아프간 전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도 기독여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보육교사회,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들의 결의 발표가 이어졌다.

참가단체들의 결의 발표에 이어 ≪세계여성평화네트워크≫ 소속의 필리핀 ≪옹갈로퍼 부클로드 여성센터≫ 알마 블라우완(Alma Bulawan) 회장과 회원 2명은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지켜질 때 ≪안전≫하지 전쟁을 통해선 지켜질 수 없으므로 즉시 전쟁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연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염 총무가 발표한 ≪전쟁반대와 전 세계의 무장해제를 위한 여성선언≫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성평화집회에서는 다양한 홍보물과 퍼포먼스들이 진행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가수 안혜경씨의 열정적인 공연과 손덕수 씨의 ≪평화를 저해하는 것들에 대한 추방의식≫은 참가자들과 호흡을 함께 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집회장 주변에는 전쟁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문구가 적힌 옷들을 빨래줄에 전시한 것과 ≪마고 할미≫의 등장 등은 집회장을 돋보이게 했다.

이날 집회는 사회를 맡은 최광기씨의 ≪우리의 소원은 평화≫ 노래 선창과 함께 참가자들의 합창이 어우러지면서 마무리 됐다.

한편, 평화 여성회의 이김현숙 공동대표에 의하면 여성평화행동은 그 동안 진행해 온 △≪평화쪽지 이어날리기≫(이후 부시 미대통령, 청와대, 국회에 보낼 것) △미대사관 앞 1인시위(9월11일부터 시작 함) △국제연대에 시위소식 알리기 등을 지속할 것이며, 또한 참가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김현숙 공동대표에 의하면 현재 ≪여성행동≫에 40여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지만 참가 단체는 계속 늘 것이라고 밝혀 이후 ≪힘없는 여성≫이 모인 ≪거대한 힘≫을 기대해 볼만하다.

통일뉴스 2001-10-12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미국은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반대와 전 세계의 무장해제를 위한 여성선언

미국내 테러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에 우리는 또 다시 경악과 공포를 느낀다.

그간 우리는 미국이 이번 테러 사건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촉구해왔다. 테러는 결코 전쟁과 무력으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화해로 해결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의 보복공격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미국 정부는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전쟁을 통해서는 테러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전쟁은 무고한 희생자와 더욱 극단적이고 참혹한 폭력만을 불러올 뿐이다. ≪항구적 자유≫(enduring freedom)의 명분 아래 시작된 보복공격은 실제국제적 질서에 위배됨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보복전쟁은 건잡을 수 없는 군사적 대립과 반목을 야기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에 대한 보복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테러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보복전쟁 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복전쟁에 즉각적인 지지발표를 하고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는다. 무엇이 평화를 위한 길인가?

김대중 정부는 보복공격에 대한 지원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쟁과 폭력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전투병은 물론이고 비전투병과 물자, 자금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지원 계획을 철회하라.

유엔과 각국은 여성, 어린이 등 피난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세워라

우리는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또 다시 피해자가 된 무고한 아프간의 여성과 어린이들, 약자들에 대해 깊은 비통함과 슬픔을 느낀다. 이미 그들의 기나긴 피난의 행렬이 시작되었고, 난민의 80%를 차지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은 공포와 굶주림 속에 방치된채로 있다.

지상군투입의 임박함은 이들에 대한 참혹한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미사일 폭격세례으로 부시대통령이 주장하는 ≪세계 정의의 수호≫가 이뤄질 순 없다.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아프칸 난민의 희생을 줄 일 순 없다.

유엔과 각 국은 무고한 아프간의 여성들과 어린이들, 피난민의 인

권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세워야 한다. 나아가 미국이 이번 테러사건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 테러 사건을 기회 삼아 자위대의 군사력과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고 한다. 또한 미국지원법을 제정하며 집단자위권을 확립하려하고, 다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화를 경계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과 미국의 보복전쟁에의 참가 의사를 당장 철회하고,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분명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건대,

우리 여성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테러와 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계획이 당장 철회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전세계 방방곳곳에 산적해 있는 최신 강력 살인 무기의 전면적 해체를 강력히 주창한다.

우리 여성들은 인간의 생명과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1년 10월 12일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기독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대구여성회 두레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전국여성노동조합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환경운동연합주부지킴이 등 계속 참가 확대 중)

MD 공대위, ≪반전 평화≫ 집회

MD 반대 국제 행동의 날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MD 공대위)≫는 13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MD 반대 국제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부시 행정부의 보복 전쟁을 중단하고 MD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통일운동단체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집회에서 MD 공대위 문정현 상임대표와 민주노총 허영구 직무대행은 미국의 아프간 침략의 부당성과 세계의 전쟁을 부추기는 MD정책을 규탄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매향리 국제 문화제 일본 오사카 참가단의 도요사 대표는 지구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충만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전쟁반대, 평화≫를 힘차게 외쳤다.

또한 민주노동당 학생그룹(다함께)의 김인식 운영위원은 ≪부시 미 대통령은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에도 공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전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무차별한 전쟁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부시 미대통령이 자신을 인도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MD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행보는 9.11 테러가 준 교훈을 저버린 처사≫라며 ≪많은 돈과 첨단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쏟아 붓더라도 증오와 대립의 근원을 치유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미국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파병과 지원이 아닌 보복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아프간 민중을 지원해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장 주변에는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는 ≪손도장찍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통일뉴스 2001-10-13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미국의 보복전쟁은 합법적이란 말인가?

제25차 미대사관 반미연대 집회 열려

미국의 보복전쟁은 합법적이란 말인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 3개단체는 16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열린마당에서 ≪미국의 보복전쟁 즉각 중단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를 위한 제25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미국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의 반대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 그리고 한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계획 철회를 주장하였다.

첫 번째 연설에 나선 문정현 신부는 미국에서 긴급상황을 신고하는 전화번호가 911이다, 그런데 금번 미국에 대한 테러가 9월11일 벌어진 것은 미국의 아랍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하여 경고하는 의미로 9월 11일 행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사태는 미국이 스스로의 국제정책을 자성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권오창(실천연대)상임대표는 어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전하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테러국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항의문을 통해 우리정부의 파병계획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에 대한 미국의 반인륜적인 학살행위에,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김대중 정부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족적인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병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파병계획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집회가 끝난후 미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집회참가자를 대표하여 서경원(자통협)상임대표를 비롯하여 3명이 미대사관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대사관측의 수령거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미대사관측은 수령거부 이유로 미대사관내 관련부서와 사전약속없이 방문한 점과 금일 집회를 한국경찰로부터 불법집회라고 연락받았으며, 따라서 불법집회 후에 가져온 항의문을 받을 수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들어갔다.

항의문을 전달하려는 대표들은 뒤돌아 들어가는 미대사관 관계직원에게 짧고 강한어조로 Was the Massacre by the U.S.A legal ? 이라고 외쳤다.

통일뉴스 2001-10-16
오인환 기자(tongil@tongilnews.com)

반전 평화!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연세 실천단 활동

미국의 부시정권이 천명한 소위 ≪보복전쟁≫이라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 침공이 임박한 현실과 8월 대회의 성과를 계승하여 공동선언을 기치로 보다 주동적인 투쟁을 일궈야 하는 정세적 요구에 맞게 투쟁하고자 결의하였습니다. 하여 10월 6일 첫회의를 시작으로 10인의 중앙실천단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보복전쟁 반대!, 전쟁 지원 반대!≫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는 구호를 들고 그 어느때보다 헌신적으로 대중들을 만나갔습니다.

첫 이틀만에 70여개의 강의실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유인물을 아침, 점심 선전전을 통해 4000부의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첫날엔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한 학우가 구호를 ≪보복전쟁 중단≫에서 ≪아프가니스탄 무력 침공 반대≫로 들어야 한다는 전화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한 손엔 낫을 또 한 손엔 ≪평화를 바라기에 전쟁을... - 부시 왈≫이라고 씌인 피켓을 든채 스크림 복장을 한 실천단을 많은 연세인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주며 오가며 ≪보복전쟁 중단!, 전쟁 지원 반대!≫ 연세인 엽서쓰기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비가오나 마나 매일 나서서 오늘까지 8일 동안 매일 새로운 내용을 담은 유인물 1만 4천부를 배포 하였고, 엽서는 1400부정도 모였으며 180여개의 강의실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요일 새벽엔 도서관 유인물 돌리기도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우리들의 민주광장≫이란 주제로 2주간 반미 반전 내용으로 스티커 설문 등 미국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영화 포스터 해설 등 선전물도 대대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활동의 성과로 단위 실천단도 생기게 되어 이젠 스물 대, 여섯명의 동지들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19일에는 학교별 집중 반미 투쟁의 날 그리고 엄혹한 중간고사... 시험 정국에 맞게 금요 마당 사업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패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이른바 ≪테러보복≫, ≪문명의 충돌≫이라는 명분을 조작해낸 오만한 부시정권의 콧대를 꺾어줍시다. 투쟁 또 투쟁합시다!





미국의 보복전쟁 확산, 민간인 학살, 지상군 투입, 과도정권 수립 반대 9기 강총련 성명서

미국의 더러운 전쟁은 침략전쟁이고 양민학살 전쟁일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8일 새벽부터 시작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전쟁은 이제 더 이상 반테러 전쟁이 될 수 없다.

자신들의 전세계 패권정책이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이번 테러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제시나 조사과정 없이 빈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무고한 탈레반 정부를 공격한 미국은 지금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인류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각국 정부에 줄서기를 강요함으로써 세계를 양분시키고 무력 대결로 몰아갔다. 부시정권은 이번 보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각국 정부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며 미국 편에 서거나 아프가니스탄 편에 설 것을 강요한바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은 아프간 공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중국의 협력을 겨냥해 천안문 사태 이후 금지해온 군사관련 장비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발표한바 있다.

세계각국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길에 서려 하고 침략과 종속에 반대하고 자주의 길의 서고 있는 지금. 불안했던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조급한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이 선포한 반테러 보복전쟁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이 어느 지경까지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미국은 반테러전쟁이라는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무고한 아프카니스탄 민간인들은 대량학살 하였고, 아프카니스탄의 민간시설마저 심지어 최근에는 민간인들을 구호하기 위해 마련된 적십자 시설까지 폭파하였다. 애초에 테러군을 대상으로 한다던 이번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탄저균 유포를 계기로 미국의 보복공격이 아프가니스탄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탄저균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자 미 언론들은 16일 일제히 ≪배후에 이라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라크 공습에 대한 여론몰이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전쟁을 아랍내 반미국가들을 처단하는 대규모 침략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미국의 오만함의 극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작전 전개를 앞두고 17일 집권 탈레반과 반군인 북부동맹의 대치 지역을 처음 폭격한 가운데, 관련국들로 하여금 탈레반 정권 축출 이후의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붙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키스탄 언론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리들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번주에 아프간의 과도정부 구성과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번전쟁이 친미정권 수립이라는 미국의 의도대로 마무리지으려는 미국의 침략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여일이 지난 미국의 반테러 보복전쟁은 침략전쟁, 양민학살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1970년대 베트남전쟁이, 1991년 걸프전쟁이, 1999년 코소보 전쟁이 이와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침략전쟁이 벌어졌다. 이 외에도 20세기 미국에 의해 벌어진 수많은 전쟁들이 그러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김대중 정부와 한나라당은 파병과 이북의 테러위협을 운운하며 남북화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던 남북대화가 주춤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북한의 전쟁능력에 변함이 없으니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뻔뻔하게 반복되는 망언을 듣는 민족적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에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세계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강총련 6만 청춘들은 김대중 정부와 한나라당의 예속적인 전쟁지원을 반대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며 전쟁을 중단시키고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선포한다.

오는 19일 반미행동의 날을 시작으로 반미반전 투쟁을 6만 청춘의 힘과 의지를 모아 더욱 힘있게 벌여낼 것을 굳게 다짐한다.

6만의 신뢰 승리의 약속
9기 강원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77개 대학신문사 ≪반미반전≫ 성명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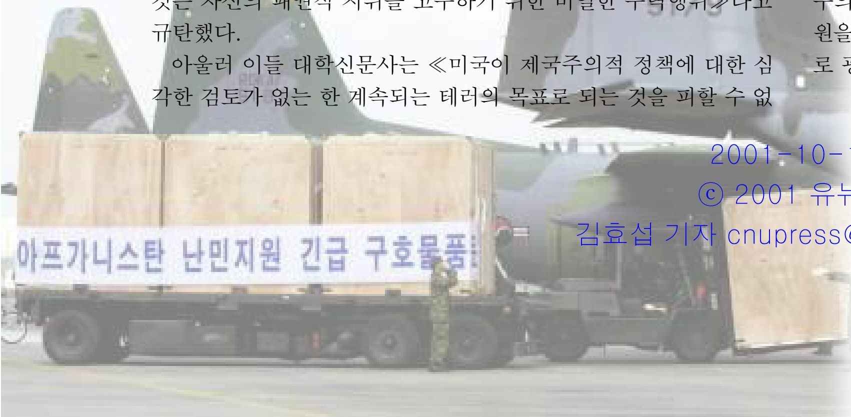
대학신문 공동광고 · 1인시위 등 전개

전국 대학신문 기자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전쟁과 한국군 파병 방침을 반대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 전대기련, 의장 · 고윤정) 소속 77개 대학신문사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서 대학신문 기자들은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정책에 대한 검토없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비열한 무력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 대학신문사는 ≪미국이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없는 한 계속되는 테러의 목표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대학신문 기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한국군 파병방침에 대해서도 ≪제2의 베트남 파병과 같은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파병을 통해 전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전대기련 의장 고윤정 양(부대신문사 편집국장)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 폐기와 반전평화에 대한 전국 대학신문사 기자들의 염원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다≫며 향후 전국 대학신문 지면에 공동으로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10-13

김효섭 기자 cnupress@hanmail.net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전국 대학신문사 공동성명

각종 일간지에서는 연일 미국의 보복전쟁 시작이라는 제하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각종 역이며 거리에 설치된 텔레비젼에서는 상공을 가르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미국의 폭격·공습의 화면들을 발빠르게 내보내고 있다.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폭격과 공습의 현장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부청사 펜타곤에 대한 동시다발테러가 벌어진 날로부터 28일째 되는 날인 2001년 10월 8일은 아프카니스탄의 수도 카블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한 최초의 공격이 시작된 역사적 날이다. 이는 동시에 미국의 반테러 전쟁, ≪항구적인 자유≫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미국의 세계 패권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비열한 무력행위로 불리워지며 새 세기의 첫머리에 벌어진 최초의 ≪제국주의 전쟁≫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젊은 대학언론인들은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 수백의 살상을 가져다 준 테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구적인 자유≫ 전쟁의 승리를 호언장담하는 웃고있는 미 대통령 부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우려스러움 금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에서 제2의 베트남 파병과 같은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격인 한국군 파병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더더욱 반대함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태러 참사야말로 미국의 세계 패권적 정책의 결과물이며 제 3세계 민중들의 혹독한 평가로 됨을 누차 이야기해왔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스턴조차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제국주의 패권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테러에 대한 ≪미연의 방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테러야말로 그간 세계 패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이 가져다 준 재앙인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심각한 검토 없는 한 미국은 계속되는 테러의 목표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미국은 그 건국의 역사부터 전쟁의 역사였다.

인디언 원주민에 대한 잔혹한 학살로 시작된 미국의 역사는 세계의 모든 전쟁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왔다. 지난 시기 치뤄왔던 미국의 전쟁행위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패권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 행위였다.

사실상 이번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파상공격으로 시작되고 있는 보복전쟁 역시도 본질에서는 다를바 없다. 특히 테러의 주도자가 오하마 빈 라덴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조차 제시되지 않고, 유엔 안보리도 승인하지 않는 미국의 무력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라고 인정할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지지 못한다.

수백의 제국주의 전쟁을 치뤄 온 미국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에서 빈 라덴의 캠프에 합류하겠다는 지원이 늘고 있는 것 등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반미 시위는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에 대학언론인들은 청년들의 파병을 통한 미 전쟁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정부에 대해 다시한번 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의 테러 보복 전쟁에 대한 지지.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명분 없는 전쟁의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한국군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전쟁 도발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정의에 민감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대학언론인은 결코 이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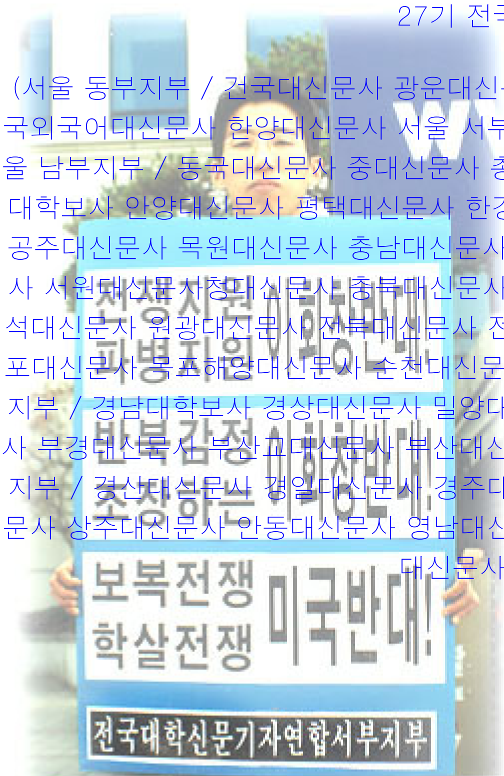
2001. 10. 9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27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고윤정

전대기련

(서울 동부지부 / 건국대신문사 광운대신문사 대학주보사 서울여대학보사 세종대학보사 시립대신문사 한국외국어대신문사 한양대신문사 서울 서부지부 / 서강학보사 추계예대신문사 항공대신문사 홍대신문사 서울 남부지부 / 동국대신문사 중대신문사 총신대보사 경기.인천지부 / 강남대학보사 경기대학보사 서울신학대학보사 안양대신문사 평택대신문사 한경대신문사 한신학보사 협성대신문사 충남지부 / 공주교대신문사 공주대신문사 목원대신문사 충남대신문사 한남대신문사 한밭대신문사 충북지부 / 건대학보사 교원대신문사 서원대신문사 청대신문사 충북대신문사 충주대신문사 한국기술교대신문사 호서대신문사 전북지부 / 우석대신문사 원광대신문사 전북대신문사 전주교대신문사 광주.전남지부 / 광주교대신문사 광주대신문사 목포대신문사 목포해양대신문사 순천대신문사 여수대신문사 전남대신문사 조선대신문사 호남대신문사 경남지부 / 경남대학보사 경상대신문사 밀양대신문사 창원대신문사 부산.울산지부 / 경성대신문사 동의대학보사 부경대신문사 부산교대신문사 부산대신문사 부산외대신문사 신라대학보사 한국해양대학보사 대구.경북지부 / 경산대신문사 경일대신문사 경주대신문사 금오공대신문사 대구교대신문사 대구대신문사 동국대신문사 상주대신문사 안동대신문사 영남대신문사 강원지부 / 강릉대신문사 강원대신문사 관동대신문사 삼척대신문사 연세대학보사 춘천교대신문사)



반테러 공격에 대한 두가지 대내적 암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2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13일, 미 해군기의 카불공항 군용헬기 공격 도중, 오폭으로 민간인 4명이 사망했음을 인정했다. 미군기는 이에 앞서 7일에도 카불 라디오센터 폭격 도중, 미사일 하나가 인근의 유엔 지뢰제거단체 사무실에 떨어져 4명의 유엔 요원을 숨지게 한 바 있다.

그러나 13일 오폭에 대해 탈레반측은 수백 여명의 사상자가 낫다고 주장하고, 이례적으로 서방 기자들을 불러들여 민간인 피해를 선전하기도 했다.

현재 아랍권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탈레반 공격을 반대하고 있다. 이기에는 이란, 이라크는 물론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도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미국의 공습을 지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는 정권 타도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내에서도 서서히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미 여론은 테러참사에 따른 반발로 부시정부의 아프간 공습을 거의 절대적으로 지지해 왔다.

먼저, 부시정부가 미 언론에 오사마 빈 라덴의 발언 보도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이를 언론자유의 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전미언론협회(IAPA)는 16일, 워싱턴에서 총회를 마치고 발표한 언론자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지난주 미국 TV방송사들에 테러 배후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의 사전 녹화 메시지 방영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문제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자체검열은 미국과 우방들이 존중하는 공개와 언론자유의 가치에 관해 그릇된 메시지를 이슬람 국가들에게 보낼 뿐 아니라 미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테러 참사 피해 유가족들도 미국의 반테러전쟁 중단을 주장하고 나서 부시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뉴욕 시민들도 테러범 색출과 처벌을 원하면서도 ≪가난한 나라≫인 아프간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이 살상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부시정부의 아프간 공격 여론을 흑백논리로 나누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6일, 미국의 탈레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군사적.도덕적으로 최선인가 라고 문제제기한다면 빈 라덴을 지지하는 것이 되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아랍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테러리즘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테러 공격이 전쟁인지 범죄인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우리가 개개의 테러지도자들을 죽이거나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올리려고 시도하는 것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미 테러참사로 빚어진 반테러전쟁은 이전에는 없었던, 테러집단과 국가간의 분쟁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유형의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갈등에 대한 성격에 대해 아직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부시정부의 아프간 공습에 대한 미국내 이같은 여론은 미국의 비타협적인 전쟁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국의 가디언지는 아프간이 테러 용의자 빈 라덴을 미국외에 다른 국가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미국이 무시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탈레반이 미국의 공습 중단을 조건으로 했지만, 증거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빈 라덴을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논평했다.

부시정부가 아프간 공습의 군사적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세계 각국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보복공격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시정부의 아프간 공습이 지속되면서 라덴 체포 또는 탈레반 전복과 같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미국 여론은 반전(反戰)으로 반전(反轉)될지 모른다.

여기에 미 국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탄저병에 노출된 환자들이 테러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부시정부의 ≪항구적 자유≫를 위한 반테러 군사행동의 대내적 기반이 점진적인 반전 여론과 탄저병 공포로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성근히 이행하라

- 북미공동코뮈니케 발표 한돌에 즈음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대변인 보도 12호)

10월 12일은 북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한 지 한돌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미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고수하며 이를 철저히 위반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북미공동코뮈니케는 90년대 북미간의 총포성 없는 결전의 총화이다. 이북은 미국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며 정치협상을 성사시켰다.

북미공동코뮈니케에는 북미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담겨 있다. 불안정한 정전협정이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는 불가피하다.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 겨레와 인류는 북미공동코뮈니케를 한결같이 환영하였다.

문제는 부시정권이 아직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정권은 모험적인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의 명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북미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남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기며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 북미관계와 6.15공동선언실현이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은 북미공동코뮈니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리고 2003년 경수로지원협정에 대한 파렴치한 약속위반이다. 국가간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깡패국가나 하는 짓이다.

이북은 참고 있다. 참고 또 참고 있으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미국에 의하여 북미공동코뮈니케가 휴지장으로 변한다면 이북은 구태여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북은 자주적인 핵동력개발사업을 재개할 것이며 인공위성도 연속 발사할 것이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

우리 민중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6.15공동선언파탄책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 미국이 그토록 반미항전을 소원하는 만큼 그렇게 해줄 것이다. 미국은 머지 않아 전민항쟁의 무쇠주먹맛을 보게 될 것이다.

항공기테러에도 기겁하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을 어떻게 당해내려 하는가. 미국은 공연한 객기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력도 명분도 없는 미국이 북미전쟁을 일으킨다면 결과는 파멸뿐이다.

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성근히 이행하여야 한다. 선임정권의 뼈아픈 교훈을 명심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10월 12일
서울



전쟁은 또다른 테러

- 미국의 대아프간전쟁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13호)

항공기테러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미국은 그간 전쟁을 준비하였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테러사건의 주범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그를 내놓지 않는다고 아프간을 연일 폭격하며 특수부대까지 침투시키고 있다.

미국의 아프간폭격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대량 살륙당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이 끊어짐으로써 아사자도 속출하고 있다. 도시가 파괴되고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아프간전쟁은 ≪또다른 테러≫일 뿐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며 대규모의 ≪합법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엔 저항이 있는 법이다. 이번 테러사건은 미국이 저질러온 침략과 약탈의 필연적 귀결이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인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교훈을 얻을 대신 또다른 ≪더 큰 테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는 테러를 낳는 법, 미국은 더욱 더 큰 테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라덴이 주범이라는 명확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그가 진범이라 하더라도 그의 제거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라덴의 죽음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순교일 뿐이다. 이제 제2, 제3의 라덴이 출현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미국은 자신의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제국주의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슬람권을 비롯하여 전세계를 상대로 한 모든 지배주의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험적인 미사일방어체계구축도 중단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테러사건으로 미사일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지 않았던가.

더욱이 미국은 대아프간전쟁을 수행하며 파렴치하게도 한국에 비전투병파병과 각종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상황에 따라 전투병파병도 강요할 것이다. 이회창패당과 현정권이 이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온 민족의 격분을 사고 있다.

우리는 테러를 반대한다. 그리고 ≪또다른 테러≫일 뿐인 전쟁도 반대한다. 따라서 ≪또다른 테러≫를 지원하는 모든 행위도 반대한다. ≪또다른 테러≫를 지원하는 현정권과 이회창패당은 민족과 인류의 이름으로 규탄될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라덴은 제거할 수 있을지언정 이슬람권 전체를 제거할 수는 없다. 미국이 ≪더 큰 테러≫를 저지른만큼 미국은 더욱 더 큰 테러를 맞게 될 것이다. 반미반전운동이 전세계를 휩쓸 것이다.

한편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저지른 ≪테러≫를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은 6.25전쟁으로 수백만의 우리 민족을 학살한 바 있다. 미국의 식민정책으로 우리 민중이 당한 고통은 이루헤아릴 수조차 없다. 우리는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식민통치라는 가공할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슬람권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중은 미국의 ≪테러≫에 전민항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 민중은 지금 한갓 테러가 아니라 핵폭풍같은 전민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머지않아 이번 테러사건보다 천배만배 무서운 반미전민항쟁을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이 파멸을 면하려면 하루빨리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배주의정책을 거두어들이고 자주, 평화, 친선의 원칙을 견지하라. 특히 이 땅에서 당장 미군을 철거하고 식민통치를 중단하라. 그 길만이 고립과 파국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일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10월 15일
서울



고이즈미내각은 자폭하라

- 고이즈미총리의 방한에 대하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14호)

오늘 10월 15일 일본총리 고이즈미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민중은 강력한 배격투쟁으로 고이즈미에게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고이즈미는 7시간만에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고 말았다.

전쟁이후 고이즈미내각만큼 철두철미 군국주의적인 정부는 없었다.

과거침략사를 미화분식하는 역사교과서왜곡은 일본당국의 묵인 하에 노골적으로 자행되었다.

일본총리가 특급전범의 위패를 보관한 ≪야스구니신사≫에 참배한 일은 유례없는 일이다.

≪에이취-2에이≫ 로켓까지 발사하며 군사대국화를 전면화하였다. 로켓 발사는 미국의 비호 하에 핵무장화와 침략적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아프간전쟁을 이용하여 ≪자위대≫해외파병까지 획책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해외침략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다.

남쿠릴연해에서의 우리 어로활동마저 강도적으로 중단되었다.

고이즈미내각의 군국화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군국화책동은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맞물리며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이즈미내각은 특히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사건을 기화로 이북압살책동을 더욱 적극화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이번 행각에는 이러한 검은 흉계가 깔려 있다.

아무런 사죄도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날뛰는 고이즈미내각에 대하여 내외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당연하다. 침략사를 백지화하고 반일감정을 무마하려는 고이즈미의 서울행각 또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으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는 고이즈미방한을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극악한 재침책동의 일환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우리는 전 민족적인 반일항전으로 천추에 사무치는 원한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다.

한편 현정권이 고이즈미의 방한을 용인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미일에 휘둘리며 비자주적으로 행동하는 현정권의 친일정책은 역사적으로 단죄될 것이다.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처럼 겁 없이 날뛰다가는 불벼락을 맞는 수가 있다. 조선은 이미 과거의 조선이 아니다. 미국이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가.

군국주의의 말로는 파멸 외에 달리는 될 수 없다. 전쟁이 재현된다면 이제는 일본열도 자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때 가서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일본인들은 고이즈미내각을 결코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군국주의내각은 지금 일본의 존재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큰 죄를 저지르면 할복하는 전통이 있다. 고이즈미총리는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그 군국주의내각도 지체 없이 자폭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이상 일본을 위한 길은 없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10월 15일
서울



안녕? 친구야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 그림전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만나 친구가 되었다.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전세계가 불안해 하는 가운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그림전≫이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어깨동무), 한겨레신문사, 그리고 전교조 초등위원회 주최로 열리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깨동무 강은미 간사는 평화그림전은 ≪동북아에 평화의 분위기를 아이들의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남북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단, 총련,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어린이 그림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또한 평화그림전은 어린이들의 그림전시와 함께 어린이 체험활동과 테마관이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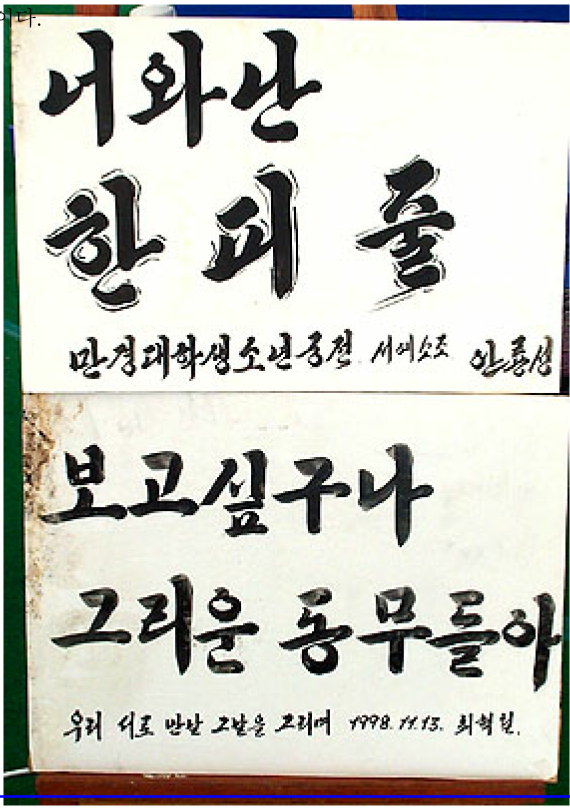
행사장에서 만난 조은영(어깨동무 대학생 자원봉사자)씨는 북녘 어린이는 주로 ≪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담고 있고 남녘 어린이 그림은 ≪신비감≫을 담고 있는 것이 남과 북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이해하기≫ 특별활동을 나온 김경화(서울 금호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며 통일이 되면 북녘의 친구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구, 자주 놀러 오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화 어린이는 북한 어린이들의 그림에 대해서는 독창적인 것 같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화그림전은 남북어린이어깨동무가 지난 96년부터 개최해온 ≪안녕 친구야≫ 캠페인을 통해 2만 여명의 남쪽 어린이들이 북녘 어린이들이게 얼굴그림 편지를 만든 것을 어깨동무가 2차례에 걸쳐 북녘에 전달하고 북녘 어린이들이 답장 그림 110여 점을 보내 와 그 그림들을 모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일뉴스 2001-10-16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강정구, 냉전세력의 힘 다시 확인



강정구교수 석방 환영회

지난 11일 보석 석방된 강정구교수(동국대 사회학과)는 자신의 구속사태와 관련해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으며≫, ≪냉전세력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몸으로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6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있었던 강정구 교수 석방대책위원회 주최의 ≪강정구 선생님 석방 환영회≫에서 그는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옥살이를 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회창 정권이 들어서면 옥살이 1호가 강 교수≫라는 한 지인의 말을 들으며 웃었던 일이 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자신이 구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김대중 정부의 유탄을 맞은 것≫ 같다고 말해 참석한 300여명 좌중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밖의 민감한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어 자신의 석방을 위해 애쓴 시민사회 운동단체와 학생, 종교계 인사, 학계 지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아직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범민련 관련 여섯 분의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환영회의 축사를 한 박순경 박사는 ≪강정구 교수의 방명록 서명은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려깊은 행동이었다≫고 말한 후, ≪만경대 정신은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한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싯구≫≫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깊은 뜻을 지닌 말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지러진 남한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강 교수는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기 위한 (냉전세력의) 인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영회 중간에는 동국대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들이 펼쳐져 시종일관 열띠고 흥분된 분위기가 지속됐다. 학생들은 촌극을 통해 강 교수 구속 이후 학생들이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줘 좌중의 흐뭇한 미소와 애틋한 사제간의 정을 느끼게 했다.

이에 앞서 환영회 1부 행사로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강의실에서 있었다. 약 100여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강정구 교수와 그의 부인 노재열 교수는 나란히 그간 옥살이 생활의 어려움과 심정을 피력했다.

구치소 생활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묻는 학생의 질문에 강 교수는 ≪워낙 어려운 생활에 단련되어 있었던 삶이라 크게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다≫며 다소 여유있는 대답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시민단체 대표들과 종교계 인사, 그리고 학계 인사들이 약 200여명 이상 대거 참석해 시종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통일뉴스 손장래 상임고문이 참석, 축사를 통해 강정구 교수의 평소 인품을 소개하며 국보법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통일뉴스 2001-10-18
홍 민 기자(mhong@tongilnews.com)

평양행사 구속자 6명은 6.15공동선언 실천단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자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 열려

지난 8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 구속된 6명의 첫 공판을 앞두고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자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자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은 ≪이번 8.15대회 때 남북한이 만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이러한 자리를 주선한 정부가 6명을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종린 의장은 구속자 6명을 포함한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 참가자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통일일꾼≫이라며 구속된 6명의 석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안당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범민련 간담회는 추진본부에 참여하는 다종다양한 계층 및 부문의 여러 차원의 모임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6인을 석방하고 기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범민련 남측본부는 강령과 규약도 6.15남북공동선언에 맞추어 개정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범민련의 노력에 당국은 이적단체규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속된 6명은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으로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대회 당시 북측 범민련과 ≪남북해외동포연석회의≫를 열고 연방제 내용이 담긴 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당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와 잠입.탈출죄를 의심받아 8월 21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중 문재룡(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부의장은 폐암 말기를 선고받아 곧 가석방 될 예정이나 나머지 5명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는 구속자를 위해 광범위하게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재판투쟁을 치밀하게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강령 개정 해설단≫을 조직해 각계 각층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중적인 토대를 마련해 다음달 25일 범민련 출범 11주년을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행사로 이끌어 이적규정 철회를 반드시 이뤄낼 계획≫이라고 박준형 대외협력국장은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통일연대, 전국연합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6인의 석방과 범민련의 이적철회를 주장하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1차 공판에 참여했다.

구속된 6명은 다음과 같다.

김규철(67,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임동규(62,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의장), 문재룡(62,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부의장), 김세창(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 박종화(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 전상봉(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통일뉴스 2001-10-18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미군유지비분담 정당한가

구국전선 주체 90(2001)년 10월 11일



최근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주한미군유지비를 올해보다 더 늘리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내외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얼마전 한미당국은 내년도 주한미군유지비를 올해 4억 4천만달러로부터 5억 8천만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주한미군유지비를 올해보다 1억4천만달러나 더 늘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된다.

지금 이 땅에선 경제형편이 악화되고 도처에서 실업자가 무리로 생기는 등 극심한 혼란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때에 엄청난 국민혈세를 또다시 미국에게 바쳐야 하는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어제 오늘에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 50여년간 한국당국자들을 강요해 주한미군≪유지비≫의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받아내고 있다.

오래전의 것은 차치하고라도 95년부터 3억달러를 넘기기 시작한 주한미군유지비는 96년에는 3억 3천만달러, 97년에는 3억 6천 3백만달러, 98년에는 3억 9백만달러, 올해 2001년에는 4억 4천만달러, 내년에는 5억 8천만달러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직접비의 명목으로 한국에서 걷어가는 액수로서 유지비총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이 땅의 부동산을 사용료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얻게 되는 간접비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미군은 이 땅에 1백 20개의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

동두천과 의정부를 비롯해 휴전선근처는 물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군산, 진해, 평택 등 경향각지에 미군기지가 그물망처럼 설치되어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의 면적은 1억평이나 된다.

주한미군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9천만달러로서 거의 20억달러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비용은 연간 1천 1백여만달러,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 3천 8백만달러나 된다.

미군은 97년 한해에 21억 9천 5백만달러에 달하는 간접비를 받아먹었다.

특히 99년에는 한화로 7천 2백 16억원의 간접비를 빨아냈다.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빼앗아내는 직접비와 무료로 사용하는 군사기지시설비, 그 관리유지에 드는 인건비, 훈련장사용비 등 간접비까지 합치면 주한미군유지비는 연간 30억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지난 50여년동안 우리 민중들로부터 주한미군유지비 명목으로 걷어간 돈은 무려 1천억달러가 넘는다.

그러면 이러한 주한미군유지비분담은 정당한가, 아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은 언제 한번 미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한적도 없거니와 한푼도 빚진 것이 없다.

더욱이 미군의 한국강점을 요청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을 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도 오히려 유지비까지 받아먹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한 날강도가 또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세계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와 같이 치외법권적인 전횡을 일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미군의 주둔이나 미군사기지의 설치가 기한부로 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법적 승인을 받고 기지사용료도 지불하지만 한국에서만은 아무런 법적 제한도 받음이 없이 전지역의 영토와 시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용하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필리핀에서 클라크공군기지와 수비크해군기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그 나라에 10여억달러나 문 사실만 봐도 잘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서 기지사용료지불은커녕 4만여명의 주한미군을 먹여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받아 먹고 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려 1억평이나 되는 제나라 땅을 미군기지로 빼앗기고도 기지사용료를 받기는커녕 거액의 미군유지비를 고분고분 섬겨바쳐야 하니 말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파동에 몰려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으며 빚에 눌려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주한미군유지비를 계속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침략자, 약탈자로서의 미국의 전횡을 또다시 폭로하는 뚜렷한 사례이며 우리 민중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저들의 세계지배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날강도행위라 하겠다.

우리 민중은 국민혈세가 동족을 멸살시키는 침략전쟁준비에 악용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이 땅에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불행과 고통, 재난을 면할 수 없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계민중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만을 가져다 주는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내몰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조 연 택)

매향리 국제문화제

≪매향리 국제문화제≫가 지난 13일 오후 6시, 이촌동 한강시민공원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의 전만규 위원장은 얼마전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채 문화제를 지켜보았다.

전만규 위원장은 ≪매향리 국제문화제의 따뜻한 마음과 매화꽃 향기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전만규 위원장은 매향리를 사랑하는 매향리 범대위 준비위원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연극, 율동, 노래공연, 매향리와 미군기지 투쟁을 담은 영상물, 영산 줄다리기 그리고 오끼나와와 오사카에서 온 국제문화제 참가단이 연대공연을 펼쳤다.

매향리 국제문화제는 새로운 투쟁과 결의를 다지는 ≪하나됨≫의 자리였다.

통일뉴스 2001-10-15





2001 주한미군 엑스포

≪미국이 우방이라고? 당신이 지금 몰라서 묻는거요?≫
≪...≫
≪누가 몰라서 그러나? 나도 신문보고 살어. 이 사람아.≫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김태순(52, 서울 방배동) 씨는 버럭 화를 낸다.
≪하지만 어쩌겠어? 미국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냐?≫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어쩔건데. 전부 다 몰아내자고? 그럼 우리나라 전쟁 나, 이 사람아.≫

2001 주한미군 엑스포.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범죄가 서울 종로타워(국세청) 앞 광장에 모였다.
군산, 대구, 부산, 서울, 원주, 의정부, 인천, 춘천, 평택, 파주 등의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난 환경, 문화, SOFA, MD등의 문제가 2001 주한미군 엑스포(박람회) ≪주한미군없는 평/화/세/상 만들기≫의 주인공들이다.
미군역사전, 보도물전, 미군 영상전(매향리의 봄), 조형전, 공연행사 등이 마련된 이번 엑스포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진행된다.
미군기지공대위,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소파개정국민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시민들이 사진 전시물과 조형물을 보며 우리 국민들의 삶과 주권을 파괴하는 주한미군의 실체에 대해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한 것이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작품은 임옥상의 조형전. ≪쇠의 꿈-날개(Dream of steel)≫와 ≪거대한 미국의 음경(Great American phallus)≫.
두 작품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남근주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매향리에서 지난 50년간 지속된 폭격의 잔해, 포탄 파편을 주워모아 조형화한 것이다.
기자가 찍은 사진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안되느냐며 다가온 방성준(강서구 방화동) 씨는 ≪임 선생님의 작품은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좋다. 내가 하는 전시회에서도 보여주면 좋겠다≫며 ≪의미있는 전시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생생한 현장사진부터 자세한 설명까지 엑스포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는 준비였으나, 아쉬운 점은 관람을 하는 시민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보충 설명을 해주는 행사의 주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주한미군의 범죄사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묻는다. ≪그래서 어쩌자고?≫
이제는 주한미군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 듯 싶다.
2001 주한미군 엑스포는 서울 행사를 마치고 평택역(토, 20일), 원주체육공원(일, 21일) 등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될 예정이다.

2001/10/18
ⓒ 2001 OhmyNews
정은성 기자 jesuslm@hanmail.net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비난하는 유인물

구국의 소리 10월 9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민중속에서 이회창을 반민족, 반통일분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대구지역에 이회창을 ≪민족반역자≫, ≪희대의 파쇼광≫이라고 비난하는 유인물이 대량살포됐습니다. 이것은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비난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자, 파쇼광입니다. 우리 민중이 이회창을 민족반역자라고 낙인하고 규탄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4.8합의서가 발표될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반대해 나섰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 때에는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부분에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이산가족상호방문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회창은 사회각계에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느니 뭐니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까지도 앞장에 서서 반대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가 활성화될수록 안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염불처럼 외워대며 남북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가지 사례만 놓고 봐도 이회창은 우리 민족과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수 없는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임이 분명합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파쇼광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무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 평양에서 있은 8.15민족통일축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일부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진행한 개폐막식에 참가했다고해서 그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사실에서만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하겠습니다. 사실 범민련 남측본부관계자들과 동국대교수 강정구씨가 구속된데는 관계당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몫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최근 자행한 몇가지 언동만으로도 그가 민족반역자, 파쇼광이라고 규탄받는 것은 피할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국민들로부터 민족반역자, 파쇼광이라고 규탄받는 것이 가슴이 아프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역사와 민족앞에 죄될 일,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일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는 항상 때늦은 법이고 기회는 항상 있는게 아닙니다. 이회창은 제명을 다 살고싶거든 민족반역자, 파쇼광의 오명을 벗는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북을 악랄하게 모략

구국의 소리 10월 13일

11일 조선일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식량지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북을 악의에 차서 비방했습니다.

신문은 정부가 이북에 퍼만주지 얻어진 것은 거의 없다, ******밖에 안보인다 뭐다하면서 독설을 퍼부었는데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습니다.

어려울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입니다. 이북은 지난 84년 수재때 순수한 동포애적 입장에서 쌀 5만석, 천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14종의 750**등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800만달러어치의 구제물자를 이남에 지원했습니다. 그때 맹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고작 2만달러, 일본은 10만달러를 제공해 우리 국민들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 동포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이북의 동포애적 지원에 얼마나 감격해 했습니까. 이북은 이렇게 막대한 구제물자를 제공하면서 그 어떤 댓가도 바라지 않았고 또 어떤 조건부도 달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퍼주는 문제에 대해 말이 난 김에 사리를 따지면 사실 엄청나게 퍼주는 것은 이남이 아니라 이북입니다. 이북에서는 이남에 천하제일명산인 금강산을 통채로 관광지로 내주었고 개성에 공단부지도 제공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 금세를 따지지 않더라도 금강산관광개발권 하나만 따져봐도 그 이익금이 그래 쌀이나 비료, *3만톤 값에 대겠습니까.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퍼주기만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면 참으로 예의도 의리도 모르는 무례한들의 넋두리가 아닐수 없습니다.

더욱이 분격을 금할수 없는 것은 조선일보가 이북의 주체농법에 대해 걸고 든 것입니다. 이북의 주체농법으로 말하면 북의 기후풍토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으로써 그 우월성과 활력이 이미 확증됐습니다. 예로부터 북쪽에는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해 원래 농사가 잘 안됐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복후 이북에서는 토지개량과 비료화, 기계화 등을 강력히 내밀고 주체농법을 창안, 돌입해 식량기근지대로부터 식량자급자족시대로 전변됐습니다. 84년 수재때 북에서 보내준 쌀이 6년 묵은 것이여서 확실히 북이 쌀이 남아도는 별세상이라고 우리 민중이 얼마나 탄복했었습니까.

주체농법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이땅의 농업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토지개량사업 등 이북의 농업정책에 대해 좋게 평가하면서 수년내에 이북이 식량수출국으로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던 북이 최근 수년간 식량사정이 어렵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대북압살책동과 연속되는 자연재해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식량기구도 대북식량지원을 호소했고 그에 따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이북의 농법의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조선일보패거리들만이 감히 이북의 농업정책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북의 변화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열하고 고약한 수작입니까.

조선일보가 대북지원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북을 자극하는 악설을 퍼부은 것은 동족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6.15공동선언을 실현해 통일을 이루려는 겨레의 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입니다.

조선일보의 이같은 행위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향을 거스르는 행위는 천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선일보불구독운동을 벌이면서 조선일보는 자폭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국민은 극악한 반민족반통일매문지 조선일보에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일치한 요구대로 하루빨리 자폭해야 합니다.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

구국전선 주체 90(2001)년 10월 11일

지난해에 있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분위기가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

지금 전체 민중은 민족의 의사와 요구, 이익을 그대로 반영한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할 열의에 넘쳐있다.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골자로 하는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대단합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6.15공동선언이행을 훼방하는 장애세력이 있다.

그 걸림돌이 바로 이회창이다.

원래 4.8남북합의서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그것을 못마땅해 하며 시기상조니, 선전용이니 하던 이회창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자기의 반역적 정체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6.15공동선언이 북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느니,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줘 들뜨게 했다느니 하며 악의에 차서 헐뜯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공동선언이행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땅에는 미군이 있다.

주한미군은 국토분단의 장본인이고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애당초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명백히 통일의 방해자,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만 존재해 왔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는 안중에도 없이 주한미군이 평화와 자유의 수호자이니, 한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필수요인이니 하며 미군의 영구주둔을 사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데 대한 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행위이다.

이회창은 또한 연방연합에 의한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란 지난 시기 군사파쇼정권의 집권안보에 악용되던 승공통일, 북진통일이다.

역사적 사실은 제도통일이나 흡수통합방식으로는 언제까지나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통일 그 자체가 거꾸로 놓은 반통일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회창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보다는 일신일당의 더러운 야욕을 위해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회창이 남북사이의 내왕과 교류, 협력을 시비질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당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남북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공동선언 이행과정이며 전민족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협소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개인간, 장사꾼들 상호간 이루어지는 주고 받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북이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 협력을 통해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신뢰를 두터이 하며 그 과정에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상호주의를 운운하며 제동을 걸다 못해 일방적인 이북퍼주기로 매도하며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이것은 남북사이에 장사거래나 하며 분열을 지속시키려는 그의 흉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다.

나타난 현실은 이회창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이며 민족의 반역자, 통일의 방해꾼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걸림돌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이익만이 손상당할 것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민중모두가 하나로 뭉쳐 6.15공동선언이행길에 박힌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의 절박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 선 일)

방상훈 사장 징역7년 - 벌금130억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5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0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벌금 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세청 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이를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납입, 자신의 지분을 늘리는 등 사적인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논고문을 낭독하지 않고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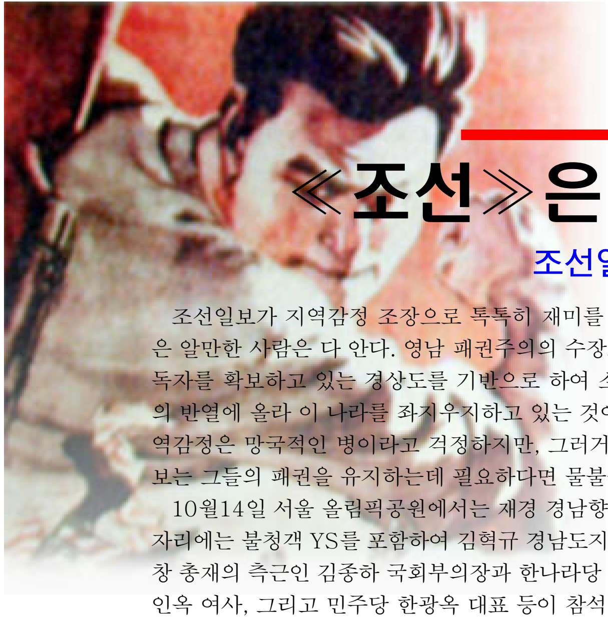
방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세무조사가 언론사나 기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94년 세무조사 당시 권력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사장 취임 뒤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방 사장은 또 ≪앞으로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내 자신부터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독자들이 내린 엄숙한 명령≫이라며 ≪한국언론은 이번 기회를 재탄생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특정권력, 특정광고주, 특정정당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2001/10/15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조선≫은 지역감정 조장 1등 신문

조선일보 건재하는 한 지역감정 만발

조선일보가 지역감정 조장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영남 패권주의의 수장으로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여 소위 ≪1등 신문≫의 반열에 올라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다 지역감정은 망국적인 병이라고 걱정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조선일보는 그들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10월14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재경 경남향우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청객 YS를 포함하여 김혁규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측근인 김종하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 한인옥 여사, 그리고 민주당 한광옥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회포를 푼다는 데야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동창회라는 모임엔 가본 적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신도시에서나 전에 살던 서울에서나 향우회 나오라는 권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무작위로 도 단위의 향우회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경험이 없으니 인식이 있을 리 없고, 따라서 시비 걸 근거도 없다. 문제는 지역 정서를 교활하게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언행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다.

경남향우회 행사는 모든 신문들이 비중은 작지만 놓치지 않고 기사로 다뤘다. 여기서도 조선일보는 단연 돋보였다. 지역감정, 특히 영남지역의 정서를 부추기는 데 홀로 독주하여 1등을 했다. 15일자 9면에 2단으로 실린 관련기사의 주요 대목을 보자.

≪≪제1회 재경 경남향우 한마당 큰잔치≫가 14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1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선 행사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한 것도 조선이 유일하다. 다들 ≪경남향우회≫ 정도로만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참석인원도 가장 많게 1만 명이 넘게 참석했다고 했는데, 참고로 동아는 5000여명, 중앙과 한국은 4000여 명으로 표기하였다. 조선은 기사의 제목이 아예 ≪재경 慶南향우회 1만여명 참석≫이었다. 성황을 이루며 세를 과시한 행사였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경남도민들의 단결을 호소,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들어보자. 김종하 부의장은 ≪4년 전 경남인들이 분열되는 바람에 정권을 뺏겨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다시는 ≪제2의 이인제≫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차기 대선에서 경남도민들이 4년 전의 분열(?)을 되풀이하지 말고 단결하여 영남당인 한나라당 후보를 무조건 찍어줄 것을 호소했고, 큰 호응을 받았다는 얘기다. 아직 각 정당의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도 사람들은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것은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이야 그렇다고 치자. 신문이 이것을 받아 부추겨서야 되겠는가? 모름지기 바른 언론이라면, 이 대목에서는 정치인들을 꾸짖고 군중심리를 다독여야 정상일 것이다. 적어도 신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호되게 나무란다면 지역감정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4년 전 경남인들이 이인제에게 표를 많이 주는 바람에 정권을 뺏겨(?) 고통을 당하고 있단다. 뺏기다니. 정권이 원래 저들의 전유물이었던가? 게다가 경상도 사람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단다. 이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지역감정을 악의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은 이것을 천연덕스럽게 경상도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신문들은 어땠을까? 조선처럼 영남 지역의 정서를 자극하는 신문은 단 하나도 없었다. 동아는 유일하게 YS가 당초 불청객이었음을 밝혔으며, 중앙은 ≪모임에선 지역정서가 노출됐다≫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나마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사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기사라도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큰 기사는 큰 기사대로, 작은 기사는 작은 기사대로 독자를 세뇌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잔 펀치라도 지나치게 많이 맞으면 캔버스에 드러누울 수밖에 없다. 매 앞에 장사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건재하는 한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01/10/15

2001 OhmyNews 김동민 기자 wanju@hanil.ac.kr

≪조선일보 회개하라≫ 기독교인 나섰다

신문개혁 기독교연대 노상기도회

≪조선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권력의 주변에서 이 민족을 거짓으로 끌고간 신문 아닙니까... 이 민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불의와 왜곡을 일삼는 저 신문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아멘.≫

≪안티조선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목회자 정의 평화 실천협의회(이하 실천협의회)≫, ≪전국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KNCC)≫ 등 기독교 관련 단체들도 ≪조선일보의 회개≫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처럼 기독교 단체들이 연대해 특정 회사 또는 신문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천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첫 기도회를 가진데 이어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언론재단 앞에서 조선일보의 회개를 외치며 기도회를 개최해왔고, 이날이 네번째다. 이들은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 같은 장소에서 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실천협의회와 KNCC, 기독학생총연맹(KSFC)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 기독교연대≫는 18일 오후 12시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맞은 편에 위치한 한국언론재단 앞에서 ≪조선일보 회개 촉구 제4차 노상 기도회≫를 열고 ≪반민족 친일신문 조선일보는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선일보의 회개를 촉구했다.

문대골(신문개혁 기독교연대 상임대표) 목사는 이날 약식예배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자유(자주)≫와 ≪공존≫의 2가지 핵심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이제까지 조선일보는 자유를 억압하고 공존을 해치는 일들을 해 왔으며 이는 지존자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목사는 또 ≪조선일보는 보수세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계를, 민족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그들을 논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선일보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문개혁 기독교연대≫는 기독교 교단의 정식 단체와 기구, 그리고 그외 기독교 청년 단체나 여성단체 등 사실상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총망라된 언론 개혁 모임이다.

기독교연대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우 목사는 ≪≪노상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언론 재단 앞에서 계속해 왔다≫며 ≪오늘 저녁 양평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앞으로 ≪조선≫ 회개를 위한 더 조직적인 활동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반대 대전시민가족 걷기 대회

신문개혁국민행동 · 인물과사상 대전충남모임 공동주관

지난 10월 14일(일) 오전 11시 탄방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40여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문개혁국민행동 대전충남본부≫와 ≪인물과 사상 충청독자모임(이하 인사모)≫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선일보 반대 대전시민가족 걷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이 날 행사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대중적인 참여의 장을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각계 단체 및 시민들은 ≪조선일보 반대≫에 한마음을 모았다.

행사 참여 단체로는 인사모, 노무현 의원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목원대학교 만들기 모임(조아목원), 민족문제연구소, 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민주노동당이 참여해 대전시민과 뜻을 같이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부터 서대전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하는 동안 현수막 및 피켓 선전과 홍보물 배부를 통해 조선일보의 ≪해악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 날 행사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홍보물을 유심히 읽어보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홍보물을 받아든 한 아주머니는 ≪조선일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벼~≫라며 옆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어떤 학생은 조선일보를 왜 반대하는지 궁금해하며 대전충남민언련 우희창 국장에게 설명을 듣기도 했다. 또한 차를 타고 가던 한 사람은 참가자들을 향해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등 사뭇 다른 관심이 돋보이기도 했다.

1시간 30분정도의 거리 행진 뒤 12시 30분경 서대전공원에 다다른 참가자들은 간단한 식사와 휴식 후 정리집회를 가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여인철 대전지부장은 정리발언을 통해 ≪저기 낙엽이 지는 나무가 곧 조선일보의 신세이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옥천신문 오한흥 편집장은 ≪조선일보 반대는 모두가 함께 신명을 살려가며 해야하는 일이다≫라며 즐겁고 재미있게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지역에서의 ≪조선일보 반대≫행사는 이번 ≪조선일보 반대 대전시민가족 걷기 대회≫를 필두로 10월 25일(목), 서대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신문고를 울려라≫ 등의 공연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전망이다.

◎ ≪조선일보 반대 대전시민가족 걷기 대회≫를 신문개혁국민행동 대전충남본부와 공동으로 주관한 인사모 현원형씨와의 인터뷰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 몇달 전만 해도 안티조선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안티조선의 절박성과 문제성은 깊어만 가고있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논의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안티조선의 흐름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그 와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이끌어 낸 것이 바로 ≪걷기 대회≫이다.

행사를 열기까지의 과정은?

– 이미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인 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선일보 반대≫시위를 가져가고 있었지만 신문개혁국민행동 대전충남본부에서 대중참여의 필요성을 인식, 인사모와 공동주관하에 걷기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과거 보수여권도시, 자민련 도시로 불려지던 대전지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었다.

행사의 성과점 및 미비점은 어떤 것인가?

– 성과점으로는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가진 ≪조선일보 반대≫행사라는 점이다. 일은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을 때와 한 번이라도 행했을 때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걷기 대회는 뜻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미비점은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조선일보 반대 대전시민 가족 걷기대회≫라는 행사에 걸맞지 않게 행사가 흐지부지 이루어진 감이 있고, 참여인원도 많이 부족했으며,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조선일보 반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금까지는 조중동에 대한 문제제기조차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 독자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교묘히 이용하는 속임수를 써왔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많이 흐려졌다고 생각이 된다. 언론을 벗어날 수 있는 개인과 단체는 없다. 민족지, 정론지로 위장한 조선일보에게 언론으로서의 ≪제 몫 찾아주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벌여나갈 것인가?

– 앞으로 ≪조선일보 반대≫를 더욱 조직화하고 열심히 해나가야만 하겠다. 이제 되었다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폐간운동과 제 몫 찾아주기 운동을 꾸준히 일궈나갈 생각이다.

2001-10-16

한밭대 김길중 기자 blancciel@hanmir.com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철폐돼야 한다

구국의 소리 10월 13~14일

오늘 통일의 길에는 콘크리트장벽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과 함께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가로놓여 있는데요. 콘크리트장벽의 해체와 함께 국보법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통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수 없죠.

네,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철폐돼야 한다≫ 김현규씨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런 존재명분도 없고 이미 철폐됐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버젓이 존재하면서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유린하고 나라의 통일실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검찰당국은 지난 8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대표단 성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검거, 투옥한데 이어 지난 9월 29일에 또다시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8.15민족통일대축전에 각계 대표들이 참가한 것은 당시의 사전승인에 의한 것이였고 또 그들의 활동을 봐도 탄압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방북대표단 성원들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해서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강화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공안당국은 방북대표단 성원들의 만경대 참관을 범죄시하고 있는데 만경대로 말하면 우리 민중은 물론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심장으로 우러르는 혁명의 성지인 것입니다. 만경대로는 매일과 같이 이북을 방문을 방문하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당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이 찾아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참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을 비롯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방북대표단 성원들의 만경대 참관을 문제시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이면서 사법처리할 것을 주장해나섰고 공안당국은 그들의 반역적인 주장에 동조해 방북대표단 성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의지가 전혀 없고 동족의식마저 없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국토분단을 영구화하고 정권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조작된 첫날부터 이땅에서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마저 참혹하게 유린하고 민족의 영구분열과 남북대결을 주장하는 기능을 해왔을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국민, 우리 민족에게 끼친 해독은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애국자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갔고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도 국가보안법의 희생물로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해독성의 하나는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지속되어온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는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 대결과 분열의 장벽을 높이 쌓아온 만고죄악의 역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남북관계는 상시적으로 긴장되었고 불신과 대결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마련되곤 했던 남북대화도 파탄을 면치 못했곤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간의 대화와 통일과는 절대로 양립될수 없는 반통일악법입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대화와 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부정하는 집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과 연계를 갖는 단체나 성원들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한다는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생존권마저 유린하고 민족의 통일염원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이 합의하고 내외에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과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관한 남북합의서에도 위배됩니다.

특히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할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도 1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건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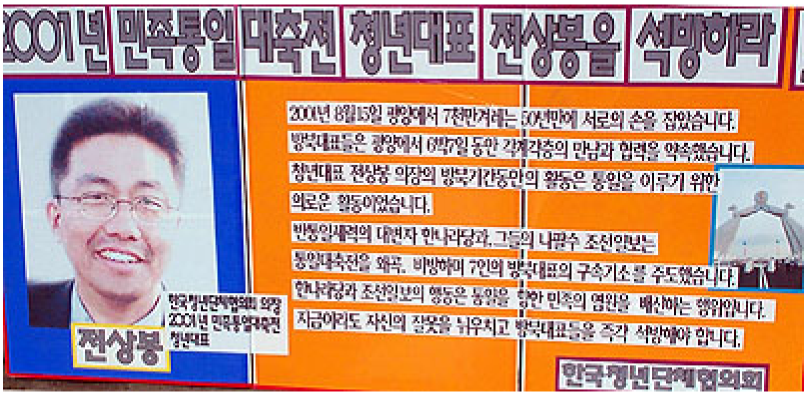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정신에 정면 위배됩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습니다. 우익보수세력들은 오늘도 의연히 국가보안법유지를 고집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간의 접촉을 문제시하고 있고 심지어 북을 주적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가 안하는가는 화해와 대결,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의 입장을 가르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당국은 낡은 대결의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와 화해, 통일의 입장에 서야 하며 국가보안법유지를 주장하는 반통일세력들의 망나니짓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시대의 흐름이고 전국민, 아니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국제사회도 국가보안법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국가보안법유지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철폐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입니다.

당국은 내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파쇼악법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지체없이 무조건 철폐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유지는 파멸의 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국보법철폐는 하나의 법을 없애느냐 마느냐하는 그런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이루느냐 마느냐하는 중대사인 겁니다. 국보법철폐에 대한 입장은 곧 통일이냐 분단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인 겁니다. 통일을 위해 민족의 내일을 위해 국보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죠.



방북인사탄압 중지하라

구국전선 주체 90(2001)년 10월 11일

9월29일 경찰은 범민련 서울연합 부의장 김규철씨 등 범민련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과 동국대 강정구교수는 이미 평양에서 진행된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직후인 8월24일 ≪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찬양, 고무, 이적단체가입, 이적표현물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되었었다.

이들을 구속탄압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며 남북의 화해와 단합, 통일문제해결에 저해를 주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행의 한 고리로 이루어진 뜻깊은 통일행사였다.

그것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전민족적인 화합과 단합의 마당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남과 북, 해외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문제될 수 없다.

이들이 축전에 참가해서 한 말과 행동은 통일을 바라는 그들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고 통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으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축전을 지지하고 대표단성원들의 활동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만큼 그들의 언행이 문제시될 것은 조금도 없다.

그들의 행동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외없이 민족의 이익보다는 일신일파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반민중, 반민족 추물들이다.

통일을 위한 일을 한 사람들이 이런 추물들의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검찰당국은 부당한 이유로 구속한 방북인사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와 함께 통일을 가로막는 희세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손잡고 통일해야 할 상대방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을 휘두르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정의를 지향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애국민중은 방북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전면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재야인사 백철수)

단병호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전체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종교계와 약속 깬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

김대중정부가 당초 단병호 위원장의 10월 3일 출소약속을 어기고 재구속한 것에 대한 거센 저항이 16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석방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으로 새롭게 모아졌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 정부가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한 것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기만행위일 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와의 약속을 깬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검찰이 노정간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천주교가 중재해 약속한 사항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부도덕함과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노·정간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우려하며, 김대중정부가 단병호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0월 17일
민주노동당



1인시위 9일째,
나는 왜 국보법의 폐지를 원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 9일째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과 달리 선전문구를 열심히 읽어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수고한다는 말, 폐지는 안된다는 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놈들은 빨갱이라는 말 등등 지나가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들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보이는 한 아저씨는 옆에 나란히 걷고 있던 사람들에게 국보법 폐지하라는 놈들은 다 빨갱이니, 잡아들여야한다는 말을 낮은 음성으로 점잖게 말하며 지나갔고,

30여분 뒤엔 ＊＊＊의원이(요즘 정국으로 봐서 색깔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이름은 안밝히는 것이 좋겠죠?) 수고한다는 인사말을 하며 다가왔고, 옆에 있던 비서인 듯한 사람이 ≪이 분이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해놓고 있는 분≫이라는 설명을 하더군요.

어쨌든, 우리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시간 30분 동안 국회 앞에 서있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고 있는 선전문구를 읽어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지만, 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효용성의 측면에서.

나는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다른 중요한 사안도 많은데.

그것은 내가 살면서 느끼고, 부딪히는 많은 일들 중의 하나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내자신의 인권조차도 국보법에 의해 알게모르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철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현실, 주위를 의식해야 하는 현실을 국보법이 조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국보법의 토대하에 반공이데올로기가 주입되던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회에 대한, 또는 나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겠지요.

그러나 사회의 진일보를 바라는 사람중의 하나인 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유를 억누르는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면 빨갱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빨갱이는 모두 감옥에 잡아넣어야 한다는 야만적인 분위기가 이 사회에 계속 남아있는 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빨갱이 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상징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빨갱이는 독재정권유지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면 순한 양처럼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묵묵부답,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파랭이 입니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쪽으로만 기울어있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견이 존중되는 이성적인 사회야 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사회가 바로 그러한 이성적인 사회가 되지못하도록 막고있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국회 앞이고 평일 낮 12시 부터 90분 동안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합니다. 한분의 참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꼭 연락주십시오.

2001. 10. 1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청년서강 대의원 연행에 대한 서강청년동우회 성명서

비이성적 대의원 수배 중단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지난 10월 13일 우리는 가슴아픈 소식을 접했다. 3명의 서강대학교 후배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세 명의 후배들은 지난 2000년에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로 인해 한총련 대의원 혐의로 2년째 수배생활 중이었다. 연행된 이 후배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전원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명의 서강 후배들에게 붙여진 죄명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학생회 연합조직인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및 대의원에 대한 수배조치에도 동의할 수 없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말 그대로 학생회 연합조직이다. 매년 그 구성원이 바뀌며, 학생회 임기에 따라 그 대의원도 바뀌고, 따라서 해마다 총노선과 활동의 내용도 달라진다.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조직 그 자체를 ≪이적단체≫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다. 또한 학생회장이 학생회 연합조직의 활동방향을 논의 결정하는데 있어서 대의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이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한국 사회의 모든 대학생들을 ≪이적인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당 년도의 총노선과 관계없이 조직 그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장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이적단체 가입≫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또한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의 내용을 강령에서 삭제하여 이미 이적단체 규정의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여전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규정하며 학생회장들을 수배, 연행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정치탄압의 도구일 뿐인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시대의 악법을 존속시키려 하는 반통일수구세력의 발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법인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해 온 5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언제나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였고, 노동자, 농민, 학생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였고, 숱한 조작사건을 만들어 내어 이 땅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도구였다. 그러하기에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서로를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한 지금, 국가보안법은 그 법적 존재의 의미조차 상실했다.

이러한데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조차 반대하면서 조국의 올바른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반통일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지금 마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3명의 서강 후배들은 진작에 폐물이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더불어 지금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후배들과 그들의 자주적 조직 한총련 역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족쇄채워져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학생운동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 탄압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역사를 거스르지 말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연행한 3명의 서강 후배들과 모든 한총련 대의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대의원 수배 중단하라.
독재시절 역사적 폐물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서강청년동우회



공안당국은 학내사찰활동과 학생운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대학내에서의 프락치활동, 미행, 도청 이런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군사정권 하에서나 공안기관들이 행하던 활동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러한 불법적인 사찰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이다. 공안기관의 대학에 대한 사찰활동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에 그리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학원에 대한 사찰활동이 여전히 예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올해 고대, 경희대 등 많은 수의 대학에서 공안기관의 프락치인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 학내에 계속적으로 상주하고 학생회간부들에 대한 미행, 도청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활동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단국대에서의 조직사건, 경원대 김건수 동지 사건, 서울지역민주노동자회 사건, 최근의 진보의련 사건까지 공안기관의 사찰활동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사건의 발생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활동보다 더욱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공안기관의 사찰활동이 단순한 사찰활동이 아니라 조직사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실제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경험, 공안기관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에 의해 규정된 이적서적 몇 권과 정상적인 학생활동에 대한 사찰자료위에 덧칠을 해서 조작된 조직사건을 수없이 만들어왔던 것은 조직사건 조작음모의 실재여부가 농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공안당국에 경고한다.

학원에 대한 사찰활동은 그들 스스로도 절차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에도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작태이다. 또한 그러한 사찰활동을 바탕으로 조작사건을 만들어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려 하는 것은 더욱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우리는 또다시 공안당국이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시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망령을 땅속에 매장하여 버릴 것이다. 공안당국은 자신들이 구시대적인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학원사찰, 조직사건 조작음모를 다시금 꾀하는 것이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구시대적 학원사찰, 조직사건 조작음모 즉각 중단하라!

학원사찰 자행하는 경찰청은 진상을 공개하고 공개사과하라!

2001년 10월 13일

학원사찰활동규탄과 학생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과 학생운동

구국의 소리 10월 10～12일

겨레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깊게 심어주는 6.15공동선언,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은 그 관철을 위해 앞장에서 매진해갈 시대의 주인공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앞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어떠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하겠는지 그에 관해 김현규 말씀드립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습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될때 조국통일이 앞당겨지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반세기 이상이나 지속되온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이념밑에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6.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남과 북,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합류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상황은 이땅에서 학생운동을 비롯한 각계 민중운동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외에 엄숙히 천명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은 지난날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반미자주화투쟁을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땅에서 반미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은 이미 가열차게 전개되어온 미군양민학살진상규명과 살인원흉처벌, 매향리사격장폐쇄와 주한미군기지반환투쟁, 한미행정협정반대, 주한미군철수, 대북압살책동중지 등의 구호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반미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과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 추종하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열주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 생각할수 없습니다.

학생운동은 국가보안법철폐, 반이회창구호를 들고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통일의 원수,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과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학생운동이 각계 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투쟁해야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통일애국세력의 단결을 도모해서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총련이 통일운동단체들과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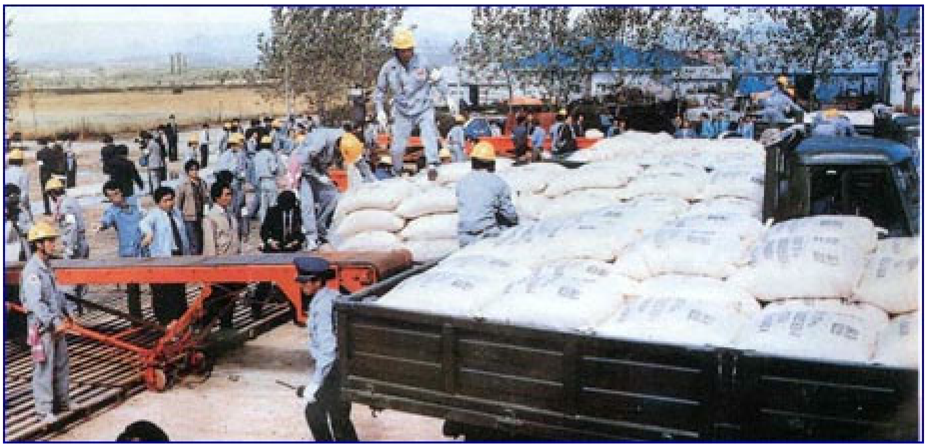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민중의 요청에 부응해 학생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는데서 선봉장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호주의 그 이면

구국의 소리 10월 13～14일

옛날 옛적에 돈에 눈이 어두워 부모형제도 모르는 장사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신발을 하나 요구해도 돈을 달라고 했고 동생이 천을 조금 부탁해도 돈했다나요. 놀부를 찜쪄 먹을 노랭이라 해야 할겁니다. 장사꾼의 심보란 항상 이렇게 고약하죠. 그런데 민족의 중대사인 통일을 위한 도상에 그런 놀부심보의 장사치들이 나타나서 겨레를 경악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회창이 그 왕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회창이 장사치의 논리로 외쳐대는 상호주의의 이면에 대해 파헤쳐 볼까요. 임기수씨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또다시 남북관계는 상호주의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6개월간이나 중단됐던 남북당국간 회담이 재개되어 온 국민이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는때에 상호주의를 다시금 들먹이고 있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상호주의라는 말은 원래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상호거래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상호주의란 우선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며 그 집행과정에 서로 독립권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며 상대국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게 대해준다는 원리이다.

상호주의는 국가간에 통용되는 원리일뿐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장사치들의 원칙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상품 등의 거래에서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 상품과 금품, 또는 상품과 화폐의 교환에서 같은 가치의 상품을 받고 같은 물건 또는 화폐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과연 여기에 상호주의라는 원리가 통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간의 관계도 아니고 장사치들사이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분단된 나라안의 두 지역간의 관계이고 한 핏줄, 한 언어를 가진 동족간의 관계, 민족내부문제이다.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서로 아끼고 돕고 이끌며 한 가족처럼 살아왔다. 이런 미풍양속을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일시적으로 갈라졌다고해서 결코 남북사이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므로 남북사이의 상호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회창과 극우익세력들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물꼬가 터진이후에도 발악적으로 남북간의 상호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원래 상호주의는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한다고 내놓은 것이다. 미국이 상호주의를 내놓은 목적은 이북과의 국가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간판을 걸고 이북을 끌고 들어가 상대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야욕을 이룩해 보려는데 있다. 이회창과 그 패거리들은 미국이 북을 압살하기 위해 들고 나온 이 상호주의를 그대로 되받아 떠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고 동족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범죄적 책동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그 돌격대로 나선 것이다. 이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통일을 이루려는 겨레의 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이회창일당의 이같은 주장은 민족분단고착으로 일신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꿰하려는데로부터 나온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회창일당이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초보적인 동족의식과 의리를 저버리는 비열한 짓이다.

이미 지난 84년 수재때 이북이 구호물자를 이남에 보내온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헌데 이북은 구제물자지원역사에 전례없는 막대한 양의 구제품을 남녘동포들에게 보내줄때 눈꼽만큼도 그 어떤 댓가를 바라지 않았고 그 어떤 전제조건도 비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회창과 우익수구세력들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사이의 협력이 적극화되자 북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라느니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다느니 뭐니 하며 악을 쓰며 반대해 나서고 있으니 이런 철면피하고 너절한 짓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결국 이회창과 수구우익세력이 고창하고 있는 상호주의는 민족의 견지에서 보나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서 보나 반통일, 반민족적 궤변이다. 이같은 궤변을 읊조리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 자주통일의 차단봉을 내리려는 이회창과 그 패거리들은 마땅히 척결돼야 할줄로 안다.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이회창을 매장하자

구국의 소리 10월 4~6일

지금 항간에서는 ≪그 사람 안돼≫라는 말이 책에서 유행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이회창을 두고선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는 거고 이런 자가 대권을 쥐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하겠죠. 이회창은 특히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사업 등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게거품을 물고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으키며 반대해 나서는 반통일광입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이회창을 매장하자≫ 오일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남과 북사이에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분위기가 끝도 없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민족적 화합과 단결이 아니라 대결만을 고취하고 있어서 내외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 일 :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산가족상봉과 교류, 협력을 비롯한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됐고 상정된 문제들에 합의를 보았어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겨레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당위성과 활력을 다시금 확인했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우리 민족끼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 이회창은 이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남북대화를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사회자 : 그건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을 전후해서 이회창패당이 벌인 온갖 발악적 책동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일 : 북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재개할데 관한 제의를 해왔을때만해도 그렇죠. 북의 아량과 성의로 6개월만에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되게 된데 대해 모두가 지지환영했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회창패당은 북의 대화제의가 누구의 구출작전이니 누구에 대한 신임의 표시니 뭐니하는 얼빠진 소리를 하며 대화를 파탄시키려했고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됐을 때에는 대북문제를 토론해서는 안된다느니 경계해야 한다느니 뭐니하며 시비질을 해댔어요. 남북회담문제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이라든가 내외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회담결과에 대해 시비질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들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분열광신자라는 것을 잘알수 있죠.

사회자 : 이회창패당의 남북대결소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에 엄중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패당의 남북대결책동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오 일 : 네, 그래요.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북을 자극하는 험담을 하고 방북인사들을 터무니없이 걸고 든 것은 그 하나의 사례예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에서 진행된 뜻깊은 행사예요. 실제로 그것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통일을 지향하는 남과 북 해외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전민족적인 회합과 단합의 장이였어요. 때문에 평양에서 진행된 통일축제는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냉전수구세력만은 8.15민족통일대축전을 남북대결에 악용하면서 **이니 통일전략이니 뭐니 하며 악랄하게 비방중상했고 방북인사들이 축전개폐막행사에 참가하고 민족의 성지를 참관한데 대해 무슨 ***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형해야 한다고 별의별 악담을 다했어요. 이건 남북사이의 접촉과 교류의 문을 차단하고 반목과 대결을 조장해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

사회자 : 8.15통일대축전과 관련해 일으킨 탄압소동과 남북대결책동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반대하고 남북관계개선을 파탄시키려는 이회창패당의 발악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경향각지에서 반이회창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일 : 옳아요. 지금 각계에서는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족자주권을 반대하며 남북대결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반이회창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어요. 최근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반통일반민족세력 한나라당을 해체하라, 이회창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에 있는 한나라당사에 대한 기습시위를 벌였고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소속 대학생들도 전남대학교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이회창이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들은 7천만 겨레가 6.15공동선언실현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이회창은 이에 역행해 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남북간의 냉전기류를 몰아오고 있다고 규탄하고 이회창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총련소속 대학생들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의 조직을 선포하고 앞으로 그의 행동을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학생단체들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들과 민중들속에서도 이회창의 반역적 정체를 폭로하고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회자 : 지금 이회창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은 저주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그냥 두면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은 물론 조국통일운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돼죠. 하기에 지금 국민각계에서는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가열차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각계 민중은 일신일파의 대권욕을 위해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이회창을 매장하자≫이런 제목으로 오일씨 모시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통일진군길에 가로놓인 걸림돌인데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은 뿌리채 뽑아 버리는게 상책이라 하겠죠.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 문제

구국의 소리 10월 10～12일

조국통일은 7천만 겨레가 한 마음으로 지어가는 큰 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온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기초하여 해결되고 온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조국통일위업, 이런 거창한 대업을 성취하려면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각계 운동단체들이 더욱 굳게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어떤 단체든지 막론하고 굳게 손잡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모색하면서 6.15공동선언관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지향입니다. 그 실현노정에서 제기되는 목표, 깊이 새겨보아야할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관해 유진명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현시기 학생운동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제의 하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잖아요. 이를 위해 학생운동과 각계 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 애기를 좀 나눠볼까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분단 55년만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성사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았다고 말할수 있죠.

유진명 : 그렇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고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말할수 있어요. 이같은 6.15공동선언은 내외분열주의자들의 간절한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남과 북, 해외의 온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죠. 정말 6.15공동선언은 반세기이상이나 되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이룩해나갈수 있는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것은 이땅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물론이고 각계 민중에게 크나큰 감격과 고무를 안겨주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죠.

유진명 : 아시다시피 지난 8월 평양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2001년 8.15통일대축전이 벌어짐으로써 지금 남과 북 해외의 온 7천만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합류해 나섰어요. 이런 현실흐름은 이땅에서 학생운동과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할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이땅에서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학생운동과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가 뭔지 그에 관해 말씀해주시죠.



유진명 :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단체들이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앞에 놓고 통일운동에서 각계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연대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땅의 각계각층의 대중운동단체들과 연합단체들이 있잖아요. 예컨데 범민련남측본부라든가,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농, ********, **를 위한 전국연합을 비롯해서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이들은 결성준비와 투쟁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민족전체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죠. 그런만큼 청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들 각계 단체들과 얼마든지 연대연합을 실현할수 있어요. 그래야 *******.

사회자 : 그러니까 학생운동과 통일애국단체들이 통일애국이라는 대의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면 얼마든지 연대연합을 실현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불문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학생운동이 각계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유진명 : 옳은 말씀입니다. 학생운동과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자면 과거보다 현재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투쟁하는 하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만일 지난날 부족점이 있었다고해서 오늘을 보려고 하지 않고 과거만을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학생운동과 각계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은 고사하고 통일운동의 승리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운동가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현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찬성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나 인사들과는 과거의 행적을 묻지 말고 연대연합을 이룩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한때 하나의 연합조직안에서 자기 단체의 위상만을 절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대하며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현상을 보곤 했는데요. 오늘에 와서 학생운동과 각계 운동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명 : 분파적 행동은 곧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은 패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운동가들은 대방을 존중하고 공동행동을 취하는 입장을 가지고 연대연합을 이룩해나가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학생운동과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애기를 들었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여러분의 실천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는지요. 그렇다면 참 기쁜 일인데요. 우리 더 많이 모색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대하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 도도한 기상을 안고 조국통일이라는 큰 집을 세워봅시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

구국의 소리 10월 10～12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요즘 일본반동지배층이 해외출병을 위해 어떻게 책동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 일 : 일본반동지배층이 해외침략준비를 발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서 있은 대규모자폭공격사건을 계기로 해외침략을 위한 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한 기습사건을 걸고 있을수 있는 그 무슨 테러에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며 특히는 미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할수 있게 법을 제정완비해야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자위대법≫개정입니다.

9월 14일 일본 방위청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미지원대책과 관련해 법률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집권 여당은 해외팽창을 위해 자위대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자위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기성립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정계와 군부, 국회의회세력들은 자위대법개정에 일본의 안전담보가 있는 듯이 법개정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기어이 성사시키려하고 있어요.

사회자 : 일본반동들의 자위대법개정책동에 대해 일본출판물들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일 : 네, 그래요. 일본우익반동세력들의 자위대법개정책동에 대해 일본의 대부분의 출판물들이 보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평을 달고 있는데요. ≪도쿄신문≫은 정부여당이 자위대법개정안에서 강력한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규정을 자위대법에 설정할 방침이라고 까밝혔고 ≪아사히신문≫은 일본정부가 자위대법개정검토에 들어갔으며 그를 위해 임시국회소집도 앞당겨질수 있다고 보도했어요.

사회자 : 일본반동들이 이번 미국에 대한 습격사건을 구실로 대미지원의 명목으로 자위대법개정을 추구하는건 매우 교활하고 위험한 책동이죠?

오 일 : 네, 그래요. 일본반동들이 들고 나오는 ≪자위대법≫개정은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활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위대의 군사작전행동의 제한조치를 없애고 해외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려하고 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타산입니다.

현 일본 자위대법에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조성됐을 경우에만 자위대를 군사행동에 인입시킬수 있게 규정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국회비준을 받아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위대법≫은 자위대로 하여금 해외팽창을 노린 군사적 침략과 그와 같은 일체의 전쟁행동을 금지한 선행 일본헌법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데로부터 제정된 겁니다. 일본은 이러한 법률적 제한조치들을 가짐으로해서 전후 평화국가로써의 명분을 세워 왔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일본반동들은 헌법 제9조와 현행 자위대법을 가지고서는 일본의 안전을 지켜낼수 없다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현 자위대법에서는 무장게릴라의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치안출동이 발령되기 전에는 자위대가 무기를 휴대,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의 공격을 받아도 공격을 할수 없고 또 중요시설의 경비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위대에 의한 중요시설경비를 가능케하기 위해 치안출동발령 전에라도 게릴라에 대해 강력한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을 ≪자위대법≫에 박아넣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자 : 일본반동들의 주장대로 ≪자위대법≫이 개정되면 자위대는 제한된 법률적 구속에서나마 완전히 벗어나 제 마음대로 활개치게 되고 개별적 사람의 명령에 따라 전쟁행동을 벌일수 있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상 일본자위대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군사작전행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죠. 그런데 일본반동지배층이 자위대법을 개정하려는 저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 일 : 중요한걸 물으셨는데요. 그 저의는 한마디로 말해 해외침탈을 단행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 ≪자위대법≫이 개정되면 일본 자위대는 각종 명목으로 일본 경외의 임의의 장소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단행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은 각이한 명목으로 ≪자위대법≫을 고쳐왔습니다. 그들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과 해외지침관련법의 개정 그리고 정체불명선침투에 대비한 자위대의 추가적인 군사활동보장 등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허용하는 조치들을 취했다는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자위대를 저들의 해외침략전쟁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출동시킬수 있게 완전히 뜯어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이번 대미기습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과 일본을 겨냥한 테러위험을 구실로 ≪자위대법≫을 그들의 해외침략전략에 맞게 완전히 개정하려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사회자 : 일본반동들이 ≪자위대법≫까지 개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가 해외군사작전에 뛰어들게 된다면 그건 아시아 나라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커다란 군사적 위협으로 되죠?

오 일 : 네, 그래요.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를 첫번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거일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맨 먼저 한반도를 침략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군사적 지배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일본의 군사작전계획이 맹렬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 자위대무력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과 아시아침략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배치되고 있고 새로운 현대적 공격무기들이 생산 배비되고 있어요.

최근 일본이 새로 발사한 ≪에이취-2에이≫로켓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을 타격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공격무기로 쉽사리 전환될수 있는 완성된 주력로켓이예요. 그리고 일본반동지배층의 역사왜곡놀이와 야스쿠니신사참배, 과거책임회피는 군국주의의 침략사상의 발로이고 날로 악랄해지는 재침책동의 집중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번 대미기습사건을 계기로 수상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반동지배층의 행동은 아시아나라들로 하여금 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어요.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론은 이번 대미기습사건을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려는 침략세력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의해 새로운 전쟁상태가 일어나고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질수 있다고 경고하며 모든 나라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심사숙고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때를 만난듯이 군국주의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아공영권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군사적 재침책동은 세계의 규탄과 배격속에 그들 스스로의 자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불을 좋아하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고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을 결단코 자행한다면 저들이 저지른 전쟁불귀에 제가 먼저 타버릴 겁니다.

9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 발의서

[애국 순천향]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 중앙위원회 소집 발의

발의자 :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총련 산하
애국 순천향대학교 총학생회장 곽상욱

발의일 :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10월 18일

발의 내용 :
2001년 11월 3~4일
서총련 산하 대학교에서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간부충원 인선≫
≪청년학생이 진보정당에 가져야 할 입장과 자세≫
≪10기 한총련 인선소위 관련≫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투쟁 결의≫를 안건으로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발의합니다.

연서자 :

왜 지금 시기에 기필코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를 성사하여야 하는가

애국 순천향은 2차례의 하반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를 발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 중앙위원회 소집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애국 순천향의 2차례에 걸친 임시 대대 발의안을 보면서 전국의 많은 대의원 동지들께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600회가 넘는 통신 발의서의 조회수에도 잘 나타나있습니다.

시기상의 어려움과 실질 성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며 애국 순천향은 9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를 발의합니다.

1. 한총련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한총련의 최고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대회의 결정사항은 어떤 다른 판단이나 사정이 우선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4월 7일 한총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통일 단결에 기초한 중앙집행위원 구성을 위한 간부충원≫에 대한 내용은,

① 한총련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한총련운동에 충실히 복무할 의지를 가질 모든 동지 들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로 폭넓게 참여시킨다.

② 간부 충원의 절박성과 실천투쟁의 화급함을 반영하여, 간부 인선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학교 중앙운위 또는 지역총련의 추천과 중앙상임위의 인선 결정으로 간부 인 선을 확정짓는다.

③ 대의원대회에서 간부모집 공고를 내고, 4월 중순 안에 한총련 중앙집행위 간부 인선 을 마무리짓는다.

였습니다.

한총련은 민주집중의 조직운영 방식을 규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시한인 4월 중순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9기 한총련 간부인선이 아니, 10기 한총련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말 많이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 최고 권력기구이자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은 그러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이행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수십차례 열렸을 중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데는 대의원대회의 상이 가장 적합하겠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층 대의원들의,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대행하며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 한총련의 제반사업을 결정하는 중앙위≫에서 반드시 해결합시다. 그것이 한총련의 민주집중의 조직운영방식을 더욱 빛내이는 길일 것입니다.

2. 상집 동지들의 허심한 총화속에서만이 10기 한총련을 진정한 통일단결 속에서 강고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에는 관성이란 없습니다.

다리의 상처가 곪아서 고름이 흐르는데 딱지가 앉으면 치료될거라고 그 상처를 방치한다면 작았던 상처는 다리를 앗아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0기 한총련을 건설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해서 인선소위를 구성한다면, 인선소위가 강규에 상집으로 되어있다해서 기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인선소위를 구성한다면 이는 관성이며 형식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에겐 해결해야할 선차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간 상집동지들에 대한 기층에서의 문제제기..

3월 중앙위에서 혁신약속을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

상집 동지들은 자랑스런 한총련의 간부일꾼입니다.

상집동지들은 대중 간부입니다.

기층의 문제제기와 상집동지들이 한 혁신의 약속들에 대한 허심한 총화속에서 10기 한총련 인선소위를 구성하여야만이 한총련이 단결로 가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3. 민족민주전선의 건설, 변혁투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각 단위학교가 10기 한총련을 건설하기 위한 선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요건이 그렇다고해서 민족민주전선 건설을 위한 진보정당에 대한 논의가 늦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진보정당에 대한 단위 학교들의 준비 수위가 천차만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한총련 내의 진보정당에 대한 논의와 입장이 시급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위의 결심이 분명 각 단위학교 별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과 투쟁에 단일한 힘을 주며, 전체 민민운 진영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4. 임시 중앙위원회 자리는 가시 한번 아픔을 느끼는 자리가 아닌 분명한 통일 단결의 장이 되어야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1년을 보내왔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동지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 참 답답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가 또다시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고 채 아물지 않은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득보다 실이 더 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만큼이나 현시기 중앙운영위는 절실합니다. 악법의 굴레, 수배자의 이름표를 다음 대의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만큼, 9기 한총련의 이런 아픔들을 10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물려주진 맙시다.

물론 단 한번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자리조차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국의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단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학생회장으로써, 각 지역 지구의 중앙위원으로써, 자랑스런 한총련 중앙위원으로써 힘을 모읍시다!!

기층과 함께 힘있게 토론하고 사색하여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중앙위원들의 힘으로 9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를 기필코 성사시킵시다!!

조금의 우려점들과 조금의 문제점들은 뒤로하고 모여서 허심하게 토론해봅시다!!

이번 9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는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을 더욱 결의높게 가져가는 토대를 만드는 투쟁의 과정으로 될 것이며, 한총련 내의 크고 작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마찰등 단결을 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해결하고, 한총련의 통일단결과 혁신, 투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장이 될 것을 애국 순천향은 확신합니다.

* 연락이 가능한 팩스 번호는 19일(금요일) 오전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애국 순천향 총학생회 : 041-530-1468
* 애국 순천향 이메일 : 100doo-17@hanmail.net

범국민대회 10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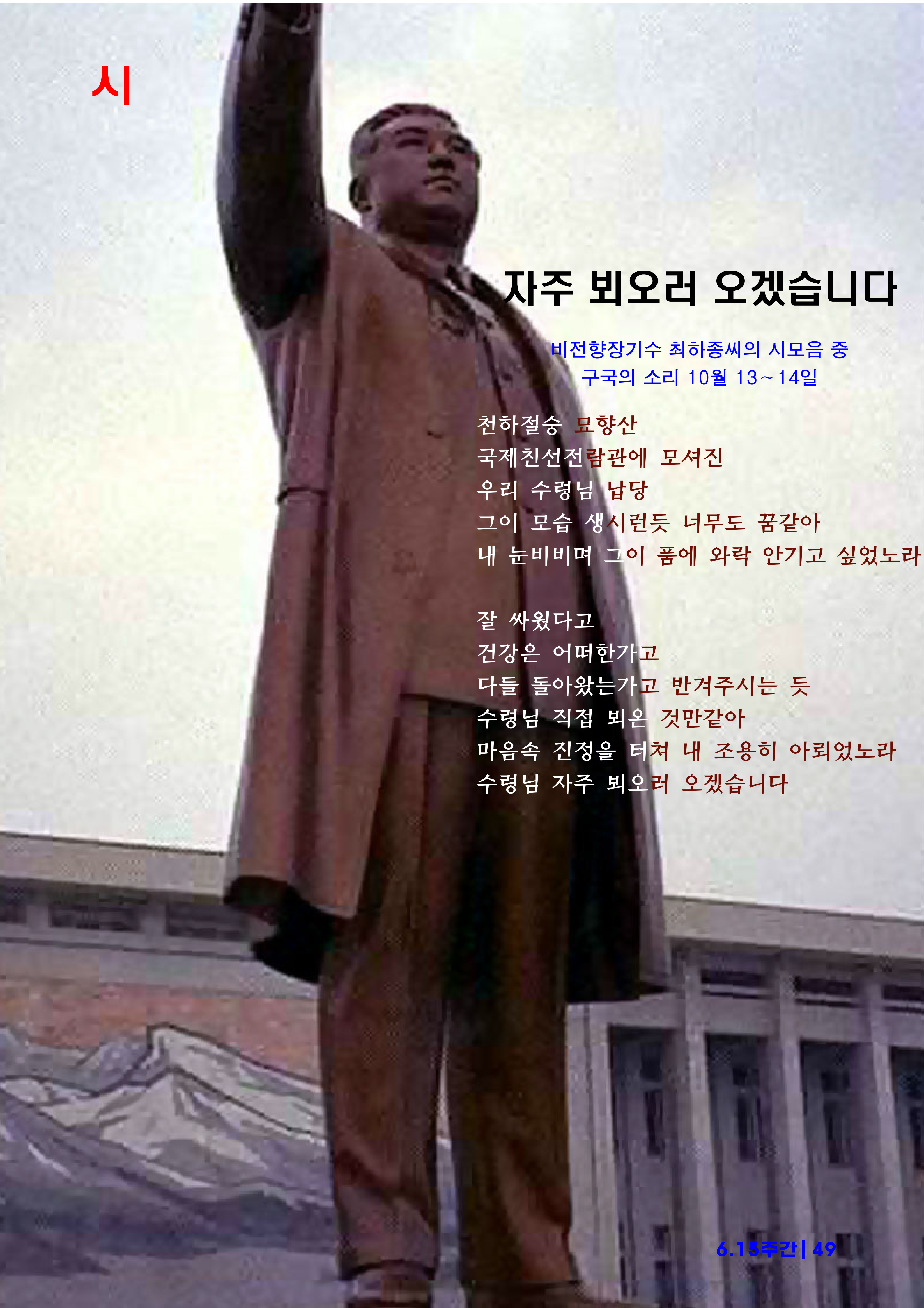
미국의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민중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침탈로 구조조정, 수입개방 등으로 노동자, 농민의 생존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바라는 전국 765개 사회단체가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하는 전 국민의 의지는 날로 높아져만 갑니다.

범국민대회는 각계각층의 의지들을 하나로 모아서 오만방자한 미국의 콧대를 꺽고 한반도 자주 실현을 외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및 장소 : 10월 20일(토) 오후 3시 서울역(수도권 집중) 전국 동시다발
주최 : 보복전쟁반대 · 평화실현!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연석회의
(민중연대, 통일연대, WTO반대국민행동, MD저지공대위, 소파개정국민행동, 전민특위, 매향리범대위, 미군기지공대위)

시



자주 뵈오러 오겠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최하종씨의 시모음 중
구국의 소리 10월 13~14일

천하절승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모셔진
우리 수령님 납당
그이 모습 생시런듯 너무도 꿈같아
내 눈비비며 그이 품에 와락 안기고 싶었노라

잘 싸웠다고
건강은 어떠한가고
다들 돌아왔는가고 반겨주시는 듯
수령님 직접 뵈온 것만같아
마음속 진정을 터쳐 내 조용히 아뢰었노라
수령님 자주 뵈오러 오겠습니다

주체 90, 10월 7일

국내 재소자들의 복역환경이 열악한데 비해 미군범죄자들이 수감된 교도시설에는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설치돼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국내 교도시설에 수감중인 미군의 경우 침대와 냉장고, 세탁기,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곳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재소자들은 아무런 시설도 없는 방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범죄자들이 살인과 강간 등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호화스러운 복역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숭미사대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의 친일행적과 친미행적까지 드러나 각계에 반이회창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굴된 일제의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과 8.15광복직후 미군정청의 ≪임명사령 제64호≫ 문서에 따르면 이홍규는 일제뿐 아니라 미군정청에 근무한 철저한 친일친미주구였습니다.

1930년부터 1940년까지의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직원록≫에 따르면 이홍규는 1929년 경성법학 전문학교를 졸업한뒤 조선총독부 관서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1932년 서기겸 통역으로 승진함과 함께 해주지방법원 송화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3년동안 근무했으며 1935년에는 검사장으로 진급해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으로 자리를 옮겨 서기겸 통역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홍규는 1938년 7급으로 진급해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장흥지청 검사국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1940년에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자리를 옮겨 사상담당 검사밑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 두 곳에만 현 공안검사에 준하는 사상담당 검사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광주지역이 조선독립투쟁열기가 높은 지역이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전주와 광주에 사상담당 검사를 두어 수많은 사상가와 독립운동가, 종교인, 야학당 관계자들을 무참히 고문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이홍규가 사상담당 검사밑에서 서기겸 친일을 한 사실은 일제의 조선인학살에 충실히 복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일제검찰에 투신한후 고속승진할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가체포와 같은 친일매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홍규가 ≪마루야마≫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어린 이회창과 함께 일본옷을 입고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담긴 사진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친일행적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미군정청문서인 ≪임명사령 제64호≫는 1946년 1월 3일 작성된 것이며 임명권자는 아놀드 미육군 소장이였습니다.

아놀드 미육군소장은 당시 한국에 진주한 미군이 1945년 9월 11일 일제의 조선총독부를 미군정청으로 공식개칭하면서 아베총독을 해임하고 임명한 최초의 미군정청 장관이였습니다.

미군정청의 ≪임명사령 제64호≫에는 이홍규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로 임명하고 직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기록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면서 조선인학살에 앞장섰던 친일주구 이홍규가 미군정청의 앞잡이로 변신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8.15광복후 미국이 미군의 한국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한 각계 민중의 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홍규가 미군정청이 임명한 검사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했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같이 이회창의 아버지 이홍규는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청에 근무하면서 동족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매국역적인 것입니다.

독초에서 독초가 돋아나듯이 매국역적의 후예인 이회창이 친일친미 매국역적으로써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노조가 안산과 구미의 열병합발전소매각에 항의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노조원 20여명을 긴급체포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9일 오전 11시 20분쯤 강원도 영월군 *** 모 공군기지 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을 하던 ≪에프4≫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에콰도르 모로나싼띠아고주정부대표단이 3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주체 90, 10월 9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주년에 즈음해 각계에서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을 맞으며 ≪한민전≫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와 성원들이 8일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민주당 전용학대변인은 한나라당 이재호총무가 다음주 국회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용호사건의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인사의 실명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보려는 얄팍하고도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는 15일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단지의 우체통에 지난 6일 이회창을 ≪민족반역자, 시대의 파쇼광≫이라고 비난하는 유인물이 대량 꽂혀 있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인물들을 본 주민들은 친미친일분자 이회창은 이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회창은 국민의 요구대로 정계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을 맞으며 그분께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경축기념보고대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선수들이 제9차 아시아로라스케이팅선수권대회 로라하키 남자경기에서 제1위를 해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그분께 이북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주체 90, 10월 10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이 대규모테러공격에 대한 군사적 보복작전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

사적 보복작전을 개시한 것으로 하여 세계는 또 한차례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이 이북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는데 대해 강조한 다음 이북이 테러를 반대하는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중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만큼 테러와의 투쟁방법도 어디까지나 이러한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행동이 세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아직도 터무니없이 이북을 테러지원국명단에 올려놓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이북은 어떤 경우에도 다 대처할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사태발전을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이북주재 스웨덴왕국 임시대리대사가 9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차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8일 이북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어은혁명사적지를 참관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시리아 대통령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그분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의 요지를 캄보디아신문 ≪카마에 아마타≫ 2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주체 90, 10월 11일

광주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주회≫ 회원인 강선주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얼마전 그는 마을 여성들에게 이북여성들의 행복한 생활상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전 이북의 다큐멘타리를 통해 장군님의 현지시찰장면을 보았는데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름없는 산골마을의 가정까지 찾으시어 부엌에 들리셔서는 쌀독이며 솥뚜껑까지 여시고 무슨 밥을 해먹었는가를 알아도 보시며 여성들이 힘들게 일할세라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는 것이였다. 또한 전적지 해설원의 해설을 들으시고는 잘한다고 치하도 해주시며 기념촬영까지 해주시는 것이였다. 그분의 이러한 사랑속에서 이북의 여성들은 나라의 주인으로,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고 있다. 정녕 **김정일**장군님처럼 우리 여성들의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주시는 그런 영도자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키우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등은 8일 서울 명동 가톨릭센타에서 검찰의 단병호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어 민주노총과 청와대를 중재한 김승옥신부의 행동은 전국의 사제단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며 약속을 짓밟은 정권을 회개시키고 단위원장을 석방시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통일집단인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을 제거해버려야한다는 각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김모씨는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 남북협력사업을 계속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유무상통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건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다. 더욱이 남북협력사업으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사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 사업에 호응해 나설 대신 오히려 퍼주기식 지원이니 뭐니하며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에게는 애초에 자기 겨레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생각이 티끌만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솔직히 말해서 이북이 우리가 어려울때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었는가. 84년 수재때만해도 우방이라는 미국이나 일본의 지원이라는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였지만 이북이 취한 구제조치는 그 양에 있어서나 성의에 있어서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것이였다. 그런데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북협력사업을 시비중상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한미군주둔비니 뭐니하면서 미국상전들에게 마구 퍼주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면서 말이다. 이런 패당이 정당이랍시고 목소리를 높이며 활개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룰수 없다. 이런 반민족적 집단은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34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테러보복전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종교단체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문인협의회는 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습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은 절대 반대한다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홍우씨를 9일 이른바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재수감한데 이어 부당한 구실밑에 이홍우사무총장을 기소한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말살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7일 총연합회 회의실에서 경축집회를 가졌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국제고통련,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이 7일 타슈켄트시에서 경축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10일 이북의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과 항일혁명투사들, 각계층 민중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이북의 각계 민중들과 인민군 장병들, 비전향장기수들, ≪한민전≫ 평양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주체 90, 10월 12일

검찰이 재수감된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에게 영장청구전날 반성문제출과 노사정위원회복귀 등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이즈미일본총리의 방한을 반대하는 기

운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종군피해여성들이 반대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본군 종군피해여성 3명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길에서 1시간씩 차례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일본대사관앞에서 수요집회를 벌여온 할머니들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배상특별법과 진상규명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고이즈미가 한국땅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도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1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과 전국 16개 지부별로 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대규모집회를 가졌습니다.

검찰이 11일 현직 의사 김모씨 등 8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신문≫노동조합이 임금협상재개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발행이 13년만에 중단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1일 재미교포 ****일행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10월 13일

서울에 사는 한 출판사의 언론인 김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조선로동당창당일인 10월 10일을 맞으며 뜻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지난해 방북때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진행되었던 조선로동당창당 55돐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나날이 삼삼히 떠올라 흥분되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그중에서도 ≪5월 1일≫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가장 인상깊다. 사상성에 있어서나 예술성에 있어서나 흠잡을데 없는 세계적인 걸작품이였다.
나는 이 희한한 화폭을 보면서 영도자의 주위에 똘똘 뭉쳐 만난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가는 이북 민중의 일심단결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고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지도력의 완벽성을 절감했다.
이북처럼 정치지도자와 민중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은 단병호위원장의 재구속과 관련해 10일 19시에 시도의 민주당당사앞에서 동시다발집회를 갖고 대정부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여성연합, 환경연합, 민주노총등 전국 76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중단을 촉구하는 반전평화 시국대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는 미국에 맞서 싸우는 아프가니스탄민중을 후원하는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전국에 걸쳐 조합원교사집단조퇴와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각계에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을 부득이 당분간 미루기로 한 북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북의 이번 조치는 여러모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북을 겨냥해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예측할수 없다. 북의 이번 조치는 있을수 있는 재난을 미리 막고 남북관계를 차질없이 발전시키려는 애국충정의 발현이다.
북이 심수숙고끝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한국당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당국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구실로 북의 동향주시니 무력증강이니 하면서 아무 상관없는 북을 심히 자극하는 것은 그야말로 얼토당토않은 작태다.
미국에서 일이 터지고 미국의 안전을 방어할 필요가 있으면 주한미대사관과 같은 대상들의 경비를 증강하면 되지 북을 걸고 복작소동을 피울 필요는 없다. 미국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원래 미국은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다시 물꼬를 트고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반도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추종하는 당국의 행태도 문제다. 일은 저들이 저질러놓고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북에 책임을 묻고 있는 당국의 작태에 온 국민이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빚어낸데 대해 사과하고 이산가족교환방문 등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부터 마련해야한다.≫
재야인사 이모씨는 이북의 이산가족상호방문유보조치에 대한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의 언동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남북관계가 잘되길 바란적이 없다. 남북사이의 대화와 교류 등을 사사건건 시비질하며 제동을 걸어온 것이 바로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다. 북이 취한 이번 정당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무슨 큰 변이라도 난것처럼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패거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가 원만히 풀릴수 없다.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통일을 이루자면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을 지체없이 폭파해버려야 한다.≫

농민단체회원들이 벼수매가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농민회소속 농민 30여명은 농협 경북지역본부를 점거하고 벼수매가인상과 전면수매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20여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은 12일 서울 홍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우려하고 역사교과서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범국민대화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남에서 예측할수 없는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2일 중국잡지 ≪도시≫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그분께 캄보디아 인민당위원장, 캄보디아 **대표단위원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11일 이북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중앙미술전시관을 참관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